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양 보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울릉도와 독도

-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최혜경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울릉도와 독도
-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

양 보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최혜경

인 준 서

최혜경의 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내면서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 고지도 속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명칭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다수이다. 그러나 다수의 서양 고지도를 대상으로 울릉도와 독도 표기 문제에 접근한 연구는 희소했다.

본 연구는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에 있는 약 천여종의 서양 고지도를 대상으로 제작 시기별, 국가별로 울릉도와 독도 표기의 내용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16·17세기에 제작된 서양 고지도에는 한국의 형태와 국가명, 제주도 등만 표현되어 있다. 18세기 지도에 이르러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서양 고지도에 묘사된 울릉도·독도는 첫째, 두 개의 섬을 그린 후 섬의 옆에 ‘Fan-Ling-tao·Tchian-Chan-tao’ 지명을 표기한 형태, 둘째, 지명 표기 없이 두 섬의 윤곽만 그린 형태가 다수이다. 두 섬의 위치는 모두 동해안에 매우 가깝게 그려져 있다.

지명을 분석한 결과, 울릉도를 중국식으로 발음한 ‘Fan-Ling-tao’ 표기는 대체로 동일하다. 그러나 독도를 나타내는 우산도의 이칭인 천산도의 경우에는 다르다.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된 ‘Tchian-Chan-tao’는 ‘Tchiang-chan-tao’, ‘Tchian-san-tao’, ‘Tchiang-san-tau’, ‘Chiang-chan-Tao’, ‘Chian-chan-tao’, ‘Chyan-shan-tau’ 등 다양한 표기가 발견된 점이 특징적이다.

18세기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울릉도와 독도의 형태와 지명은 조선의

고지도에 기초해 중국에서 제작된 조선지도가 저본이었으며, 이에 따라 그 지명도 ‘울릉도’ 및 ‘우산도’의 이칭인 ‘천산도’의 중국식 표기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서양 각 국의 동해 탐사 결과, 19세기 이후 서양 고지도 속의 울릉도와 독도는 서양인이 붙인 서양식 외래 지명과 서양인이 그린 형태로 대체된다. 먼저, 울릉도·독도가 두 섬의 윤곽만으로 표시된 것, 다음으로 울릉도를 ‘Argonaut I. · Dagelet I.’ 로 표기한 것이 있다. 또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기로서 울릉도·독도를 ‘Argonaut I.(Taka Shima), Dagelet I.(Matsu Shima) · Hornet I.’ 로 표시한 것이 있으며 그 밖에 ‘Oulangto · Ousan’ 명칭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르코노트의 위치에는 새로운 표기 유형인 ‘Taku I.’ 가 발견되었다.

한편 국가별로 지도 제작 수를 분석한 결과, 18세기 서양 고지도에서 주축을 이룬 지명인 ‘Fan-Ling-tao · Tchian-Chan-tao’ 표기의 경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순으로 많았다. 두 섬의 형태만 표시된 경우에는 프랑스, 영국 순으로 나타났고 ‘Fan-Ling-tao · Tchiang-Chan-tao’ 표기 유형의 경우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순이었다. 특히 독일에서 제작된 Homann의 지도는 1732년부터 1750년까지 ‘Fan-Ling-tao · Tchiang-Chan-tao’ 표기를 사용하였다. 19세기 이후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울릉도의 ‘Argonaut I. · Dagelet I.’ 표기의 경우 국가별 지도 제작 수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에서 고르게 분포하였다. 그리고 울릉도·독도 ‘Fan-Ling-tao · Tchian-Chan-tao’ 표기 유형이 당빌 지도와 유사하게 단독으로 동해상에 나타나거나, ‘아르코노트·다줄레’와 함께 4개의 섬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영국 지도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울릉도·독도의 ‘Argonaut I.(Taka Shima), Dagelet I.(Matsu Shima)·Hornet I.’ 표기 유형은 ‘Hornet I.’ 대신 독도의 프랑스 명칭인 리앙쿠르(Liancourt Rock)가 병기되면서 5개의 표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명의 ‘Oulangto·Ousan’ 표기 유형은 1850년대 이후 지도에서 발견된다. 독도의 위치는 18세기와 달리 울릉도를 기준으로 동쪽(동남쪽)에 나타난다.

본 연구는 약 천여종의 서양 고지도를 대상으로 제작 시기와 국가별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표기를 분석한 데에 의의가 있으며, 지명전쟁의 성격이 커지고 있는 독도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목 차

논문개요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5
1. 연구대상	5
2. 연구방법	10
제3절 선행연구	12
제2장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울릉도·독도의 지리 인식 ...	15
제1절 서양인에 의한 울릉도·독도의 발견 및 등장	15
제2절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명칭 변화	19
1. 판링타오(Fan-ling-tao)와 찬찬타오(Tchian-chan-tao)	19
2. 다줄레(Dagelet)	24
3. 아르코노트(Argonaut)의 등장과 혼란	25
4. 독도의 첫 명칭, 리앙쿠르(Liancourt Rocks)	28
5. 울릉도(Oulangto)와 우산도(Ousan)	31

제3장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서양 고지도 속의 울릉도·독도	38
제1절 16세기 서양 고지도 속의 울릉도·독도	38
제2절 17세기 서양 고지도 속의 울릉도·독도	42
제3절 18세기 서양 고지도 속의 울릉도·독도	45
제4절 19세기 이후 제작된 서양 고지도 속의 울릉도·독도	52
 제4장 서양 고지도 제작 국가별 울릉도·독도 표기	59
 제5장 결론	67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지도 현황	8
표 2. 16세기 서양 고지도의 제작년도별 현황	40
표 3. 17세기 서양 고지도의 제작년도별 현황	43
표 4. 18세기 서양 고지도의 제작년도별 현황	46
표 5. 19세기 서양 고지도의 제작년도별 현황	53
표 6. 16~17세기 지도 제작 율령도와 국가별 현황	59
표 7. 18세기 지도 제작 국가별 현황	62
표 8. 19세기 지도 제작 국가별 현황	64

그림 목 차

그림 1. www.findcorea.com 사이트의 첫 화면	6
그림 2. www.findcorea.com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	7
그림 3. 레지의 조선왕국도(Royaume de Corée)	20
그림 4. 당빌의 조선왕국도(Royaume de Corée)	21
그림 5. 아시아지도(A New Map of ASIA from the Lastest Authorities)	32
그림 6. 아시아지도(ASIE Orientale Comprenant L' Empire Chinois et la Japon) ...	33
그림 7. 朝鮮地圖	34

그림 8.	韓國全圖	35
그림 9.	동아시아지도(Übersichtskarte von China und Japan)	36
그림 10.	한국지도(Coree)	37
그림 11.	일본지도(Iaponiae Insulae Descriptio)	41
그림 12.	세계지도(Nova Totius Terrarum Orbis)	44
그림 13.	아시아지도(Asia Recens Fummacura Delineata)	44
그림 14.	조선왕국도(Royaume de Corée)	47
그림 15.	한일지도(Carte du Japon et de la Coree)	48
그림 16.	한일지도(et des Rojaumes de Coree et de Iapan)	49
그림 17.	중국지도(China)	51
그림 18.	일본지도와 중국지도	54
그림 19.	한중지도(Map of China compiled from original surveys & sketches)	56
그림 20.	한중일지도(Stanford's Map of the Empires of China and Japan)	56
그림 21.	일본지도(Japan)	57
그림 22.	중국지도(China)	58
그림 23.	중국지도와 한중일 지도	6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의 4개 섬(쿠릴 열도),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치열한 영토다툼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독도문제로 끝없이 왜곡된 자료를 만들어가며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독도문제의 출발점은 일제의 침략사¹⁾와 맥을 같이한다. 일본의 영토침탈 양상은 동해의 명칭이 그간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로 잘못 알려지게 된 배경에서도 잘 나타난다. 영토분쟁은 특정상 식민지배 처리 과정이나 전쟁 후 점령지의 처리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역사적 근원이 주요한 쟁점이 되어 역사논쟁과도 마찰을 일으킨다.²⁾ 심지어 일본은 역사논쟁 및 독도문제에 관하여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실제로 독도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일본 외무성은 「竹島 - 타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³⁾라는 팸플릿(영문판 등)

1) 1904년 2월 23일의 한일의정서, 1904년 8월 22일의 제1차 한일협약으로 시작된 일제의 한국 침략 와중에 러일전쟁을 계기로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소위 ‘도근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였다. 이어 1905년 11월 17일에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과 1907년 2월 24일 한일신협약을 거쳐 1910년 8월 마침내 한일합병에 이르게 되었다.

2) 배진수 외, 2009,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pp.19-21.

3) 일본의 타케시마 편입, 안용복 진술에 대한 비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국의 불법 점거,

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자국의 입장에서 정리한 채 홍보하고 있다.⁴⁾

또한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 Tube)에 공식채널⁵⁾도 개설, 유튜브 내 일본 채널을 통해 타케시마(일본식 독도 표기)와 ‘일본해’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IT 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에 앞서 일본은 웹을 활용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독도와 동해에 관한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지명위원회(US Board on Geographic Names, BGN)의 홈페이지에서는 독도 귀속 국가를 ‘한국’에서 영토분쟁 지역을 뜻하는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가 ‘한국령’으로 원상회복시켰다.⁶⁾

그러나 지명 검색에서 독도의 영문 표기인 ‘Tok-Do’나 ‘Dog-Do’는 변형어(Variant)로 기재되어 있고 독도의 공식명칭(BGN Standard)으로는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가 상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주로 일본 측의 일방적인 내용을 신고 있는데 자국에게 불리한 1877년 태정관 문서(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정한 일본 최고국가기관의 공문서) 등은 누락시켜 고의적으로 역사까지 왜곡한 자료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의 역사적 사료를 통해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와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며,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팸플릿에 대한 반박문을 만들어 2008년 4월 16일에 발표하였다.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독도는 과연 일본 영토였는가?,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5) www.youtube.com/user/mofachannel#p/u

6) “美, 독도표기 일주일 만에 원상회복”, 연합뉴스, 2008년 7월 31일자 보도 내용 참조.

지도 검색에서도 ‘Liancourt Rocks(N)’로 표기되어 있고 표준 명칭을 뜻하는 ‘N’ 표시가 첨기되어 있다.⁷⁾

그 동안 우리나라는 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인식하고 ‘조용한 외교’를 기본 전략으로 고수해 왔다. 반면 일본은 대외적인 외교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타케시마’와 ‘일본해’의 지명을 고착화시키고, 독도를 영토분쟁(領土紛爭)지역으로 설정, 국제분쟁화를 시도해 왔다.⁸⁾ 이제는 지명 표기 자체가 영토분쟁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독도의 명칭은 바뀌어왔지만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문헌상, 실질상의 증거를 갖고 있는 그 중심에는 울릉도가 서 있으며, 예로부터 울릉도(鬱陵島)의 속도(屬島)인 독도(獨島)는 우리 고유의 영토일 수 밖에 없다.

울릉도·독도 두 섬의 명칭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내면서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고지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도가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이다.

7) 미국지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독도는 2가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다.

- ① 지명 검색 <http://geonames.usgs.gov/>, 중앙 상단의 메뉴 Search Foreign Names 클릭, 좌측 상단 메뉴얼에서 GNS Search Text Based 클릭 후 Names Search 란에 지명 입력
- ② 지도 검색 <http://geonames.usgs.gov/> 중앙 상단의 메뉴 Search Foreign Names 클릭, 좌측 상단 메뉴얼에서 GNS Search OGC Viewer 클릭 후 툴 바로 지역 설정

8)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치밀하게 진행중이다.

2008년 현행 일본 중학교 사회과(지리분야) 교과서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또는 “독도가 분쟁중”이라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여러 교과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자국 내 역사의식과 여론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결국 독도를 분쟁화하는데 단초를 만들어 재판 시 증거가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홍성근, 2008, 일본 교과서의 독도기술 실태와 그 영향,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지도는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 주는 도구이자 수단이다. 단순한 그림이 아닌 각종 정보가 투영된 자료로 연구나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도 속에서 구할 수 있다.⁹⁾ 특히 고지도에는 당시 지도의 완성을 가능하게 했던 과학지식의 수준과 지도 제작의 기술 및 예술적 표현능력 등이 반영되어 있어 제작 목적이나 시기에 따라 당대의 인식체계까지 살펴볼 수 있다.¹⁰⁾

서양 고지도를 통해 울릉도·독도 명칭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지도를 제작할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인식했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기본적 틀은 서양 고지도에 표기된 울릉도·독도의 명칭을 살펴 과거를 읽어내는 것이다. 고지도는 시간적 변화 즉 역사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 영유권 및 지명 문제와 관련하여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표기를 조사하는데 있다. 기본적으로 울릉도·독도의 명칭과 그 유형,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던 울릉도·독도에 관한 지리적·역사적 인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가 서양 고지도에 등장하게 된 과정과 명칭 표기의 변화를 당대의 역사적 사실과 맥락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9) 존 레니 쇼트, 2009, 지도, 살아있는 세상의 발견, 작가정신, p.12

10) 양보경, 2005, 울릉도,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한국 고지도로 본 울릉도와 독도, 북방사논총 7호, 고구려연구재단, p.6.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이용한 기본 자료들은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서양 고지도들이다¹¹⁾.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www.findcorea.com)¹²⁾는 독도 및 동해 명칭뿐만 아니라 동·서양 고지도에 관심 있는 일반 사용자부터 전문가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고지도 전문 웹사이트이다(그림 1).

웹사이트 화면상 좌측 메뉴로는 목차(스크롤바)와 영문 및 한글 지도 설명이 있다. 중앙 최상단 메뉴로는 상품코드(Product Code), 지도 명(Title), 제작자(Cartographer)를 구분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본검색과 한국 고지도 내용 관련 상세검색이 있다. 상세검색을 통해서는 울릉도와 독도, 동해 명칭 표기 등 필요한 사항만을 체크하여 이와 관련된 지도를 검색할 수 있다.

11)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수집하신 사진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자료 이용에 많은 도움을 주신 티메카의 김태진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2)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는 개인 수집가가 미국 의회도서관과 대학들 유럽과 한국 등지의 주요 도서관을 돌면서 약 4,050여종의 고지도 목록과 이미지들 그리고 지도관련 설명을 모은 자료 중 일부를 정리해 2009년 9월에 정식 공개하였다.(미주 한국일보 2009년 9월 30일 기사 중 일부) URL(<http://www.findcorea.co.kr>) 주소로도 접속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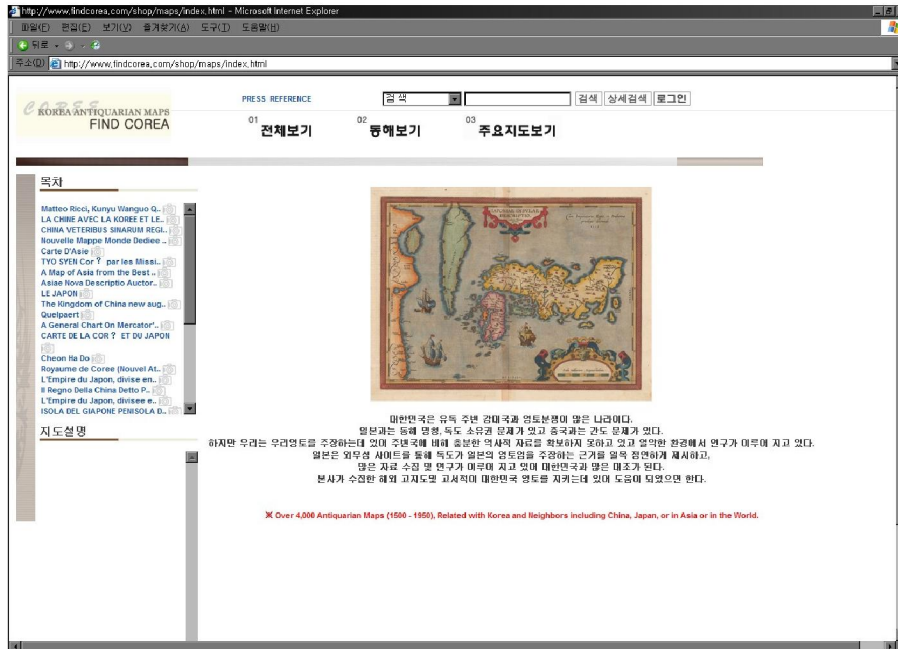


그림 1. www.findcorea.com 사이트의 첫 화면

중앙 상단 메뉴에는 전체보기(01), 동해보기(02), 주요지도보기(03)가 있다. 전체보기(01)에서는 모든 지도를 총망라하여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지도를 클릭하면 대문자 영문명의 지도 이름과 간략한 지도 설명과 상세 설명을 지도와 함께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본 연구에서는 중앙 상단 메뉴의 전체보기(01)를 이용해서 지도를 검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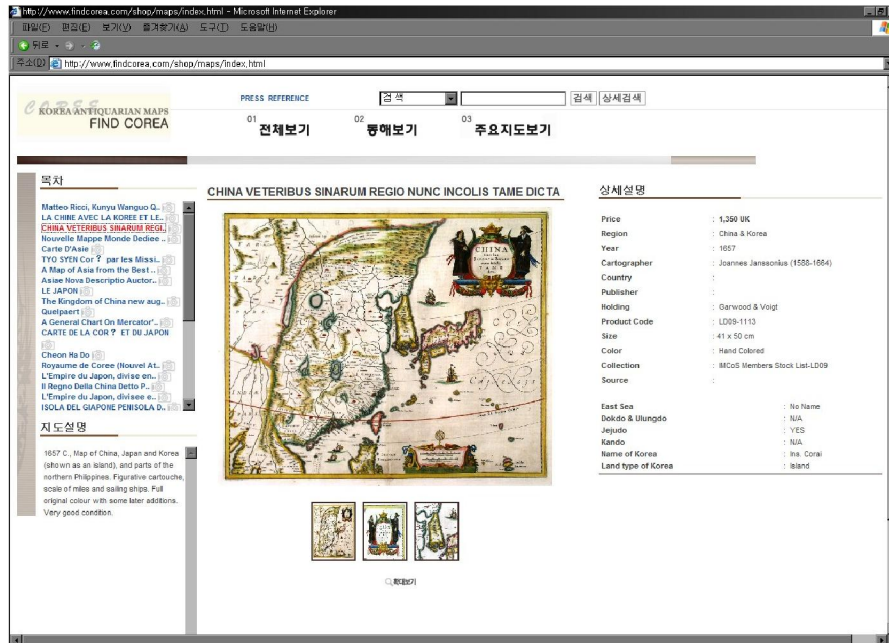


그림 2. www.findcorea.com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

상세 설명에는 가격(Price), 대상지역(Region), 제작년도(Year), 제작자(Cartographer), 국가(Country), 발행처 및 출판사(Publisher), 소유 및 저작권(Holding), 상품코드(Product Code), 크기(Size), 색상(Color), 소장상황(Collection), 출처(Source)와 동해(East Sea), 독도와 울릉도(Dokdo & Ulungdo), 제주도(Jejudo) 간도(Kando)의 명칭 표기, 한국명(Name of Korea), 한국의 인식(Land type of Korea)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 고지도에 수록된 울릉도·독도의 표기 확인을 위해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에서 좌측 메뉴의 목차와 각 지도마다 기재된 상세내용 등을 활용하여 울릉도와 독도 표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지도는 한국과 외국 관련 고지도는 총 3,935종¹³⁾이다. 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 표기에 관한 지도 분류를 위해 먼저 디지털 이미지화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이미지가 확인 가능한 지도 총 1,047종을 조사했다<표 1>.

표 1.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지도 현황

	대상지역(Region)별 분류	지도 수
1	Asia	343
2	China & Korea	220
3	Japan & Korea	158
4	World	122
5	Far East(China, Korea, Japan)	89
6	Korea	48
7	-	49
8	Japan(Iapon, Apon)	10
9	Europe & Asia	8
합계		1,047

13) http://www.findcorea.co.kr/shop/maps/index.html?search_mode=2&collection=

연구대상이 된 1,047종의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지도를 대상지역 별로 분류해 살펴본 결과 아시아지도(Asia)가 343종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및 중국지도(China & Korea)는 220종으로 전체의 21.0%를 차지한다. 또 한국 및 일본지도(Japan & Korea)도 158종으로 전체의 15.1%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표현된 지도를 수집, 제공하는 데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웹사이트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지도(World)는 122종으로 전체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동아시아지도(Far East ; China, Korea, Japan)가 89종으로 8.5%, 한국지도(Korea)와 유형을 확인할 수 없는 지도가 각각 49종으로 4.7%의 구성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본지도(Iapon, Apon)가 10종, 유럽·아시아지도(Europe & Asia)가 8종으로 각각 1% 이하로 나타났다.

2. 연구방법

서양 고지도는 자국은 물론 세계 각 지역에 대한 당대의 지식과 정보를 모두 활용해서 제작한 인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 관련 표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당사국이 아닌 제삼자의 입장에서 제작하여 객관적 시각과 입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독도와 동해 명칭에 관한 중요한 연구 및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서양 고지도에 반영되어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과 위치 변화, 명칭과 위치의 혼란은 오히려 두 섬이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서양 고지도 총 983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을 분류하기까지의 과정은 먼저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스크랩하여 확인된 지도명을 목록화하여 3,935종¹⁴⁾의 지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울릉도·독도의 표기 확인을 위해 웹사이트에서 지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1,047종을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다시 동양(한·중·일)에서 제작된 64종을 제외한 총 983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서양 고지도 총 983종의 내용을 읽고자 기본적인 항목과 분석을

14) http://www.findcorea.co.kr/shop/maps/index.html?search_mode=2&collection=

위한 표현내용 항목을 설정하였다. 기본적인 항목으로는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에서 각 지도마다 기재된 상세설명¹⁵⁾을 활용하였다. 표현내용 항목으로는 울릉도·독도의 표기¹⁶⁾와 울릉도를 기준으로 한 독도의 위치 파악을 말한다. 이 2가지 항목을 조사하여 합산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조사항목을 분석하여 울릉도·독도의 표기를 제작 시기별로 구분하였고 그에 따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넷째, 조사항목을 분석하여 울릉도·독도의 표기를 제작 국가별로 구분하였고 그에 따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울릉도·독도 명칭 변화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 이용된 고지도 중 우리나라 고지도는 토지주택박물관¹⁷⁾에 소장된 지도로 울릉도·독도 부분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2장, 제3장, 제4장에 이용된 지도 중에서 출처가 기재되지 않은 서양 고지도는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지도로 울릉도·독도 부분을 확대하였다.

15) 지도명(Name), 가격(Price), 대상지역(Region), 제작년도(Year), 제작자(Cartographer), 국가(Country), 발행처 및 출판사(Publisher), 소유 및 저작권(Holding), 상품코드(Product Code), 크기(Size), 색상(Color), 소장상황(Collection), 출처(Source)

16)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에서는 'Dokdo & Ulungdo'로 확인 가능하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전문박물관(경기도 성남 소재)으로서 1997년 개관하였다. 문화재 발굴조사 및 사회교육, 각종 기획전시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5만점 가량의 토지, 주택관련 역사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고지도와 근대지도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 동안 자료열람 승인과 사진촬영 및 자료이용을 허락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3절 선행연구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¹⁸⁾는 한국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에 유리한 사료와 지도들을 동원하여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 역사적 사료 측면에서의 연구는 많은 양이 축적되고 있으며 일본 학계의 주장과도 맞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확히 공언하고 있다.

허정백(2005)¹⁹⁾, 김기혁(2006)²⁰⁾ 등은 고지도를 통해 울릉도의 지리인식과 지명을 분석하였고, 김지영(2003)²¹⁾은 개항기 시대에 제작된 한국과 일본에서 만든 고지도를 대상으로 울릉도·독도의 표현과 위치 등을 고찰하였다. 양보경(2005)은 한국 고지도 전반을 분석해 울릉도·독도의 역사적 정체성 문제를 검토하였으며,²²⁾ 최근에는 서양 고지도를 중심으로

18)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상에 있는 섬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에 속하는 우리나라 영토이다. 울릉도의 속도에는 죽도, 관음도 그리고 독도가 포함된다. 독도는 울릉도의 동쪽 49해리, 일본의 오키시마(隱岐島) 서북쪽 86해리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신라가 우산국(于山國)을 복속한 512년부터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이다.

19) 허정백, 2005, 고지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 울릉도 지리인식, 부경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 17호, pp.163~204.

20) 김기혁, 2006, 울릉도 고지도 유형 연구,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221~224.

21) 김지영, 2003, 개항기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1910년 이전 조선시대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의 영토 인식을 검토한 결과 조선 전기는 세계지도에 독도를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표시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강력한 영토의식을 표현했으며, 이 시기 제작된 지도 중 조선전도와 도별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한 저서와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²³⁾.

또한 울릉도와 독도 명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들로는 독도의 명칭에 관한 연구²⁴⁾, 독도·울릉도의 명칭 변화 연구²⁵⁾, 울릉도·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²⁶⁾, 1900년대 초기 독도의 일본식 별칭²⁷⁾ 등이 있다. 한상복(2008)의 논문에서는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로 인해 독도가 죽도(竹島, 타케시마)라 불리게 된 경위를 밝혔다.

서양 고지도에 관한 연구로는 오일환(2004)²⁸⁾은 서양 고지도에 있는 동해 명칭 표기와 그 변화가 연구되었고 이상태(2003)²⁹⁾는 서양 고지도에 표기된

가 함께 표기돼 있다. 하지만 17세기 이전까지 많은 지도가 실제 방위와는 정반대로 '우산도'를 울릉도 서쪽에 표시하고 있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 특히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이를 계승한 다른 지도에서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이나 동남쪽, 동북쪽에 확고하게 자리잡기 시작하고 18세기 이후 군·현 지도집에서는 울릉도 지도를 단독으로 독립시켜 별도로 그리는 양식이 일반화되었음을 밝혔다.(양보경, 2005,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대한지리학회, 컨퍼런스 자료집, pp.35~64. 요약)

- 23) 이진명, 1998,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최양식 외, 2007,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한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서정철, 1991, 서양 고지도와 한국, 서울, 대원사.
- 24) 김병열, 1997, 독도의 명칭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9집(1997년 8월), 국방대학원.
김병오, 1997, 독도의 명칭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25) 신용하, 1999, 독도·울릉도의 명칭변화 연구, 독도연구총서, 독도연구보전협회.
- 26) 배성준, 2002, 울릉도·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진단학회.
- 27) 한상복, 2008, 1900년대 초기 독도의 일본식 별칭, 국회도서관 제45권 제7호, pp.4~15.
- 28) 오일환, 2004, 서양 고지도의 '동해(동해, Sea of Korea)' 표기와 유형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pp.167~186.
- 29) 이상태, 2003, 서양 고지도에 표기된 우리나라 국호,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통권 65호, pp.372~391.

우리나라 국호를 연구하였다. 오일환·김기수(2004)³⁰⁾는 18세기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제주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오인동(2004)³¹⁾의 초기 서양 지도와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표기를 연구한 논문 등이 있다.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명칭 표기에 관한 주제의 논문은 이진명(1999)³²⁾의 연구와 그의 저서가 주요 성과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서양 고지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30) 오일환·김기수, 2004, 18세기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제주도,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pp.113-122.

31) 오인동, 2004, 초기 서양지도와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표기, (내일을 여는)역사 제18호, pp.302~338.

32) 이진명, 1999, 서양 자료에 나타난 독도,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지, pp.127~147.

제2장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울릉도·독도의 지리 인식

제1절 서양인에 의한 울릉도·독도의 발견 및 등장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상의 항로(航路)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양 특히 18세기에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프랑스와 영국 등에 의해 먼저 발견되었다.

1787년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의 명령으로 라페루즈(La Pérouse)는 함대를 조직하여 극동으로 향했고 드디어 동해에 들어섰다. 이때 해도에 기록되지 않은 울릉도를 발견하였다. 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라페루즈 함대의 일원이었던 천문학자인 다즐레(Dagelet)로 울릉도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 한편 울릉도의 동쪽 방향에 부속하는 소도는 함대 부솔(boussole)호의 이름을 붙여서 'boussole rocks'이라 불렀는데 혹자는 이를 보고 독도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1797년 발간된 초판본 『라페루즈의 세계 탐험기 (*Voyage de La Pérouse autour du monde*)』 부속 지도첩 어디에도 동해에 'boussole rocks'란 이름의 섬은 없었다. 그러다가 1864년 프랑스 해군성 해도국이 제작한 해도의 동해 부분에 '부솔'이란 이름이 울릉도 바로 옆의 조그만 섬 죽서(竹嶼)에 맞추어 표기되었으며 울릉도는 '마츠시마' 독도는 '리앙쿠르'라고 표기되었다.³³⁾

라페루즈가 탐험한 울릉도는 한국의 영토 중 가장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위도와 경도 및 그 규모가 파악되어 서양의 해도와 지도에 먼저 오르게 된다.³⁴⁾

라페루즈가 동해를 다녀간 지 4년 후인 1791년에는 영국의 항해상인 콜넷(Colnett)이 지휘하는 탐사선이 동해안을 다녀갔다. 6년 후인 1797년에는 영국 해군 중령 브루톤(Broughton)이 지휘하는 군함 프로비던스(Providence)호가 원산 앞바다를 거쳐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해안선을 관측하였다. 그들이 다녀간 후, 서양 지도에는 다즐레(Dagelet)와는 별도로 동해안에 새로운 섬인 'Argonaut'가 등장하였다.³⁵⁾ 새롭게 등장한 'Argonaut'는 일반적으로 영국의 콜넷이 발견한 섬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라페루즈가 발견한 다즐레(Dagelet)와 콜넷이 발견한 아르고노트(Argonaut)는 측량한 경위도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후에 서양세계에서 출판되는 지도에는 이 동해상에 하나의 섬을 2도로 기록한다.

독도가 최초로 서양인에게 발견된 것은 1849년 1월 27일 프랑스의 포경선 리양쿠르(Liancourt)호에 의해서였다. 당시 독도는 선박의 항로상에 있었는데 이를 항해상의 위험물로 여긴 리양쿠르호의 로페즈(또는 드 수자) 선장이 해군성 당국에 보고하였다. 이후 독도의 정확한 위치와 서양 명칭은 프랑스의 수로지와 해도를 통해 알려졌다.³⁶⁾

33)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pp.56~57.

34) 이진명, 전계서, pp.55. 참조.

35) 이진명, 전계서, pp.55. 참조.

36) 프랑스 해군성의 『수로지』(1850년판, 1851년 발간)와 『태평양 해도』(1851년 발간)에 실림

프랑스에 뒤이어 1854년에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따라 수로를 탐색하던 팔라다(Pallada)호의 탐사대도 울릉도 발견에 이어 1854년 4월 6일 독도를 발견³⁷⁾하고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근거리에서 관측하여 독도 그림 2점을 그렸다. 그리고 1857년에 독도 그림을 넣은 《조선한국동해안도》를 발간하여 독도의 발견을 알렸다. 1855년 4월 25일에는 영국 함대 소속 호넷(Hornet)호가 아르고노트(Argonaut)와 다즐레(Dagelet)를 동일한 섬으로 알지 못하고 ‘Hornet³⁸⁾’, ‘Dagelet’ 그리고 ‘Argonaut’를 보고한다.

독도의 발견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위치상으로 울릉도와 비교된 아르고노트의 존재는 확인과정을 필요로 하였다. 결국 1859년 영국 군함에 의해 ‘Argonaut’ 탐색 결과 울릉도를 오인한 것으로 그 같은 섬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르고노트가 존재하지 않는 섬이란 사실이 확인되면서 울릉도·독도 명칭의 혼란이 일어났고 이것은 지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아르고노트 섬 이름 옆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직접적인 표기를 하거나 아예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 후 이름 옆에 「존재하지 현존하지 않는 환상의 섬 또는 가상의 섬이 되어 서양 지도에서 사라졌다. 서양에서 독도의 프랑스 명칭인 리앙쿠르(Argonaut)가 보급되면서 일본에서도 ‘랑쿠루암’이 사용되어 언제부터인가 ‘랑코도’로 통칭되어갔다. 그리고 마츠시마(松島)와 타케시마(竹島)의 혼란도 함께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해안탐사는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조선에 표착한 이후 프

37) 독도의 동도는 메넬라이(Menelai), 서도는 올리부차(Olivutsa)로 명명함

38) 영국 함대 소속 호넷(Hornet)호의 발견으로 붙여진 독도의 서양 명칭

랑스와 영국이 해양탐험과 신대륙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활발해졌다. 탐사의 목적은 ‘새로운 발견’과 ‘정확성’에 있었고 이것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져 수로지 및 해도가 발간되면서 각종 지도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수로지는 전 세계 모든 해양의 해안선, 도서, 암초, 수심, 해류, 기후, 등대, 부표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 및 외국의 수로 정보 등을 곧바로 게재하였다.³⁹⁾ 따라서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작성한 수로지와 해도가 군함과 어선들에게 항해의 길잡이 역할을 했고 가장 정확한 최신의 정보였다. 일반 지도 제작자들도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처럼 울릉도와 독도는 프랑스와 영국의 탐사로 인해 정확한 위도와 경도 및 그 규모가 파악되었고 서양 고지도 속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는 18세기 이후부터 확인되었다.

39) 이진명, 2005, 전계서, p. 67.

제2절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명칭 변화

1. 판링타오(Fan-ling-tao)와 찬찬타오(Tchian-chan-tao)

울릉도와 독도가 서양 지도에 분명하게 표시된 것은 1710년대에 프랑스의 신부로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던 레지(Regis, 雷孝思)가 만든 지도이다(그림 3)⁴⁰.

그 후 레지의 지도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당빌(D'anville)이 그린 조선 왕국전도(*Royaume de Corée*)(그림 4)⁴¹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되었다. 1737년에 제작된 이 지도에는 동해 북위 37° 가까운 곳에 두 섬이 그려져 있고, 중국식 발음대로 울릉도는 '판링타오(Fan-ling-tao)'로 독도는 '찬찬타오(Tchian-chan-tao)'로 표기하였다.⁴² 'Tchian-chan-tao'는 독도의 옛 명칭인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오인(誤認)한 것으로 중국식 발음을 각기 로마자로 표기한 것이다.

40) 울릉도를 'fanlingtao'로 독도를 'chianxantao'로 적고 만주어를 세로식으로 병기하였다. 위치상으로 보면 울릉도(동쪽, fanlingtao)보다 독도(서쪽, chianxantao)가 본토에 더욱 가깝게 그려졌다.(이상태, 2007, 전게서, p.235.)

41)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인 당빌이 1737년에 제작한 서양 최초의 한국전도이다. 중국의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를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제작되는 한국지도의 모델이 되었으며 19세기까지 영향을 미친 지도이다. 울릉도를 'Fan-ling-tao'로 독도를 'Tchian-chan-tao'로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위치상으로 보면 울릉도(동쪽, Fan-ling-tao)보다 독도(서쪽, Tchian-chan-tao)가 본토에 더욱 가깝게 그려졌다.(이상태, 2007, 전게서, p.133.)

42) 이상태, 2007, 전게서, p.133. 참조.



(울릉도·독도 부분 확대)



그림 3. 레지의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ée*)
18세기 초, 프랑스, Jean Baptiste Regis,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출처: 이상태, 2007,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 땅, 경세원, p.134.



(울릉도·독도 부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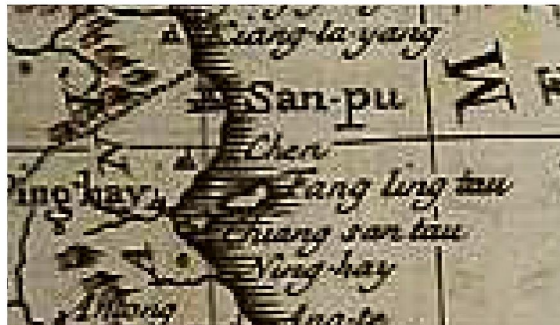


그림 4. 당빌의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ée)

1737년, 프랑스, D'Anville, 36.6cm×53.7cm, 역사박물관 소장
 출처 : 이상태, 2007,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 땅, 경세원, p.133.

일반적으로 서양 지도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가 최초로 표기되었다고 알려진 당빌의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ée*)는 《황여전람도》⁴³⁾에 있는 우리나라 부분을 바탕으로 그린 것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대부분의 지명이 중국식 발음이다. 지도에서 위치상으로는 ‘Tchian-chan-tao’로 표기된 독도가 울릉도인 ‘Fan-ling-tao’보다 내륙에 더 가까이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명칭의 오기(誤記)는 당시 중국에 파견된 프랑스 선교사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위치상의 오류는 조선의 지도제작자들이 제공한 지도⁴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황여전람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당빌의 지도가 이러한 오류를 그대로 반영했으므로 당빌의 지도를 근간으로 제작된 많은 서양의 지도들에서도 같은 종류의 오류가 답습되었다.⁴⁵⁾ 당빌의 지도가 명칭 표기 및 위

43) 박선영, 2004,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 중국사학회, p.201.

: 《皇輿全覽圖》는 서양의 발달된 학문에 바탕을 둔 지도제작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강희제 때에 제작된 지도이다. 러시아와의 국경문제로 네르친스크조약을 맺을 때 청나라를 위해 크게 공헌한 제르비용(J.F. Gerbillon, 張誠, 1654-1707) 선교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국 전토에 대한 측량을 결심한 후 1709년 5월부터 1710년 7월까지 레지(Jean-Baptiste Regis, 雷孝思, 1663-1738)를 책임자로 하여 자르토(P. Jeartoux, 杜德美, 1668-1720), 프리델리(Fridelli, 莫隱, 1643-1743) 등이 청조의 성역인 동북지역을 측량하였다. 이 때 조선의 두만강 부근 접경지대까지 접근한 바 있고 북으로는 흑룡강까지 답사하여 지도를 작성했는데 이를 강희제가 《황여전람도》라 명명하였다.

44)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의 옛 명칭)가 그려진 조선전기의 지도 속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2도로 그려져 있고 대부분 우산도가 울릉도의 좌측(서쪽)에 위치해 있다. 우산도의 크기는 울릉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정도로 표현되었다.

45)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현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 연구, p.184.

치상의 오류를 그대로 전하고 있으나 서양인들에게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에 영향을 끼친 것만은 분명하다. 즉 울릉도(Fan-ling-tao)와 독도(Tchian-chan-tao)의 명칭을 분명하게 표기했다는 점과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우리나라 동해안에 매우 근접하게 나타낸 점은 당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서양에 알려준 역사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밖에도 당빌의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ée*)에 표기되어 나타나는 ‘Fan-ling-tao’와 ‘Tchian-chan-tao’가 명칭 표기 없이 두 개의 섬으로 나란히 표현된 지도들이 19세기에 계속 나타난다.

본 연구에 이용된 영국에서 제작한 지도 중에서 Aaron Arrowsmith가 1807년에 제작한 한일지도(*Empire of Japan*)와 Alexander Findlay가 1850년에 제작한 중국 지도(*CHINA*)에 명칭 표기 없이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 이는 당시의 서양 지도 제작자들이 당빌의 지도에 나타나는 울릉도·독도에 대한 정확한 명칭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과거의 지도를 그대로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2. 다즐레(Dagelet)

1700년대의 중반에 들어서면서 서양인들은 탐사와 원정의 목적으로 함대나 선박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탐험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탐험대의 대장 라페루즈(La Pérouse)는 1785년 8월에 부솔(Boussole)호와 아스트롤라브(Astrolabe)호를 이끌고 아시아 탐험의 길에 오른 뒤 1787년 5월 27일 동해의 제주도를 지나 울릉도를 목격하였다.⁴⁶⁾ 그러나 당시 서양에서 통용되던 당빌의 지도에 나타난 'Fan-ling-tao'와 같은 섬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Fan-ling-tao'를 'Dagelet'라고 명명하였다. 이 때문에 울릉도는 'Dagelet'와 'Fan-lign-tao' 두 개의 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아쉽게도 당시 라페루즈 탐사대는 독도는 보지 못하고 북상해서 러시아의 페트로파블로프스크에 기항했는데 라페루즈 일행의 탐사 결과는 1797년 파리에서 『라페루즈의 세계여행』이라는 4권의 책으로 출판됐다⁴⁷⁾. 이후 1799년에 영국에서 『라페루즈의 항해(The Voyage of de la Pérouse)』라는 이름으로 역간됐다.⁴⁸⁾ 이 책의 발행으로 울릉도가 서양

46) 라페루즈 탐험대의 승무원의 수는 부솔호가 총 108명, 아스트롤라브호가 총 91명으로 모두 1,019명이었으며, 1788년 1월에 호주의 시드니에 도착하는 것으로써 이 탐험을 끝냈다. 독도는 발견하지는 못했고, 제주도와 울릉도를 발견하였는데 두 섬에 상륙하는데는 실패했으나 섬을 관찰하며 두 섬에 관하여 모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써서 기록하였다.(김학준, 2009,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1호, p.296.)

47) 초판본이 나온 이래, 1798년과 재판되었고, 1831년에는 초판본의 내용을 수정해 1권으로 출판되었다. 그 후에도 1930년, 1964년, 1980년 등 여러 번에 걸쳐 중판본이 나왔다. 그러나 생략된 내용이 많아 초판본이 가장 중요하다.(이진명, 2005, 전게서. p.40-41. 참조.)

에 다즐레(Dagelet)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울릉도의 서양 명칭인 다즐레(Dagelet)는 라페루즈의 발견에 의해 좌표와 섬의 둘레 그리고 본토로부터 거리 등 정확한 측정이 인정되어 서양 지도에 'Dagelet'가 동해 상에 나타난다.(그림 5)⁴⁸⁾.

3. 아르고노트(Argonaut)의 등장과 혼란

라페루즈(La Pérouse)가 동해를 탐사한 후 영국의 해군 제독 콜넷(Colnett)이 아르고노트(Argonaut)호를 이끌고 1791년 8월과 9월에 동해를 순회하면서 고래의 서식지와 관련된 탐사를 하였다. 이 때 울릉도를 목격하였지만 그 위치를 잘못 파악한 채 영국 해군수로부에 보고하였다. 이후 19세기 초의 서양 고지도에는 아르고노트(Argonaut)호의 이름을 딴 'Argonaut'라는 이름의 섬이 울릉도 북서쪽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크루젠스틴(Krusenstern)은 1803년 8월 7일 나데사(Nadesha)와 네바(Neva)호를 이끌고 세계일주 항해를 시작해서 약 3년간의 항해를 마친 뒤 1827년에 발간한 『태평양해도집(Atlas de l'océan Pacifique)』에 울릉도를 다즐레(Dagelet)로 표기하고, 그 북서쪽에 위치한 아르고노트의 설명에 「일본에서 말하는 Takasima(竹島)와 Argonaut가 같고 Matusima(松島)와 Dagelet가 같은 섬일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48) 김학준, 2009, 전계논문, p.296.

49) 이진명, 2005, 전게서. p.55.

1852년 7월 25일에는 로크모렐(Roquemaurel) 대령이 지휘하는 프랑스 군함 카프리지유즈(Capricieuse)호가 동해로 들어와 해안을 따라 북상했으나 아르고노트 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탐사결과는 1854년 발행된 해도(제1467호)에 반영되었는데 이 해도에서 울릉도는 'I. Dagelet'으로 독도는 'Rk. Liancourt'로 나타났고, 발견하지 못한 울릉도 북서쪽의 'I. Argonaut'는 점선으로 표현해 존재가 의심스러움을 나타냈다⁵⁰⁾(그림 6).

아르고노트 섬의 불분명한 존재는 서양 고지도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도 제작에도 영향을 끼쳤다. 1880년대 초까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독도의 이름을 각각 竹島(Takeshima)와 松島(Matusima)로 표기했다(그림 7). 그러나 아르고노트 섬의 영향으로 명칭 혼란을 겪게 된다. 아르고노트 섬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면서 울릉도의 일본식 이름이었던 타케시마(竹島)를 독도의 일본식 이름인 마츠시마(松島)로 바꾸어 표기했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⁵¹⁾하여 '타케시마(竹島)'로 바꿨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울릉도·독도의 명칭이 '竹島(Takeshima)·松島(Matusima)'에서 거꾸로 '松島(Matusima)·竹島(Takeshima)'로 뒤바뀌게 된다(그림 8).

더욱이 일본에 이러한 명칭의 혼란을 가중시킨 서양인으로는 독일 출신의 의사이자 박물학자인 시볼트(Siebold)가 있다. 당시 시볼트의 지도는 일본에 관한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

50)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7, 전게서, pp.190~191.

51) 1905년 1월 25일 시마네현 고시

다.⁵²⁾ 시볼트는 1840년에 《일본전도》를 작성할 당시 서양 지도상에서 나타나는 두 섬(아르고노트와 다줄레)이 본래 하나의 섬(울릉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일본 지도상의 두 섬(타케시마와 마츠시마)과 같은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다.⁵³⁾ 이후 서양의 해도와 지도에서는 아르고노트를 타케시마로, 다줄레를 마츠시마로 인식된 표기가 나온다.

그러나 1854년 러시아 푸자친 제독의 함정 팔라스(Pallas)호에 의해 아르고노트는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판명되어 지도에서 사라졌다. 이 시기 까지도 독도는 서양인들에게 발견되지 않은 섬이었다.

19세기까지 대부분의 서양 고지도에는 당빌의 조선전도에 표기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인 ‘Fan-ling-tao’와 ‘Tchian-chan-tao’의 표기부터 시작해서 라페루즈가 발견한 ‘Dagelet’와 콜넷의 ‘Argonaut’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은 1870년대 이후 서양의 지도와 해도, 수로지가 유입되면서 서양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Argonaut’의 발견과 등장 및 사라지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일본 내 울릉도·독도 명칭과 인식에 혼란이 있었다.

52) 시볼트가 1832년에 제작한 《日本邊界略圖》에는 당시 울릉도의 일본식 명칭인 ‘Takeshima’가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Matsshima’ 바로 아래쪽에 표시되었다. 그러나 1840년에 제작한 《일본전도》에는 두 섬의 표기가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기의 혼란은 일본의 잘못된 지리적 인식과 두 섬의 명칭 혼란을 가중시켰다.

53) 이에 관해서는 일본인 오오니시 토시테루(大西俊輝)도 그의 저서 『獨島』를 통해 라페루즈가 발견한 다줄레와 콜넷이 발견한 아르고노트는 측량한 경위도가 조금 다를 뿐 같은 섬으로 이후 서양 세계에서 출판되는 지도에는 이 해역에 2도를 기록했다는 것과 시볼트는 그의 저서 『일본』의 부도에 라페루즈가 발견한 다줄레를 ‘마츠시마’로 콜넷이 발견한 아르고노트는 ‘타케시마’로 각각 비정(比定)했다고 서술하였다.

4. 독도의 첫 명칭, 리앙쿠르(Liancourt Rocks)

1840년대 후반부터 울릉도 근해는 서양인들에게 중요한 고래잡이 어장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기록상으로 독도를 최초로 발견한 서양의 배는 미국의 포경선 체로키(Cherokee)호로 1848년 4월 17일 오전 4시에서 12시 사이에 독도를 발견하였다.⁵⁴⁾ 체로키호의 선장은 항해일지에 독도를 ‘two small islands’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체로키호가 최초 발견한 독도는 알려지지 못했고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⁵⁾

체로키호 이후에도 미국 포경선들은 동해상에서 고래잡이를 계속했고, 여러 포경선들의 항해 일지에 독도에 관한 기록들이 남게 된다. 1849년 3월 18일 윌리엄 톰슨(William Thompson)호의 항해일지에는 “울릉도 동남쪽 40마일쯤에 어떤 해도에도 없는 ‘3 Rocks’를 보았다”고 적었다. 이것은 조선 시대의 명칭 중에 삼봉도(三峰島)⁵⁶⁾일 가능성이 높다.⁵⁷⁾

1849년 4월 28일 캄브리아(Cambria)호도 울릉도를 발견하고 29일에는

54) 이같은 사실은 독도박물관 설립자 이종학 선생에 의해 새롭게 밝혀졌다.

55) 본 논문 16쪽 내용 참고.

56) 독도는 조선초기부터 삼봉도(三峰島)라는 별칭이 있었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의하면 성종 2년부터 12년까지(1471~81년)의 사이에 삼봉도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성종 3년 3월에는 박종원(朴宗元)을 삼봉도 경차관으로 임명하여 주민들을 쇠환하도록 했고, 6년 5월에는 삼봉도를 조사하도록 했으나 풍랑으로 실패했다는 기록이 있다. 다시 7년에는 관찰사 이극균이 삼봉도에 관해 “... 삼봉도를 바라보니 섬 북쪽에 세 개의 바위가 나란히 서 있고...”라는 구절이 있다.(김지영, 2003, 개항기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연구, p.30.)

57)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7, 전개서, p.196.

해도에 실려 있지 않은 ‘the small islands’를 보았다고 적고 있다. 이 항해일지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그림까지 실려 있다. 이는 최초로 알려진 프랑스의 해군함정 콘스탄틴(Constantine)호가 그린 독도 그림(1855)과 러시아의 군함 팔라스호가 독도를 발견해 그린 그림(1857)보다 6~8년 앞서는 최초의 독도 그림이다.

이외에도 독도를 기록한 항해일지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1849년 3월 2일 모테즈마(Moctezuma)호가 3월 9일 울릉도와 함께 ‘Pinnacle rock’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1853년 4월 18일 헨리 니랜드(Henry Kneeland)호도 울릉도와 ‘Seal rock’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1857년 3월 27일에는 플로리다(Florida)호가 ‘Dagelet Rocks’를 보았다고 기록하였다.

항해일지에 기록된 독도는 ‘3 Rocks’, ‘the small islands’, ‘Pinnacle rock’, ‘Seal rock’, ‘Dagelet Rocks’로 독도를 지칭하는 이름은 달랐지만 울릉도와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울릉도를 중심으로 기록한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屬島)임을 나타내주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서양인들에게는 독도의 ‘첫 인상’에 관한 서술이라 할 수 있다.

서양인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독도의 공식적인 첫 명칭은 ‘Liancourt Rocks’이다. 1849년 1월 27일에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 선장 드 수자(de Souza)의 항해 중 울릉도와 동쪽에 큰 암석의 독도를 발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담은 항해보고서를 해군당국에 제출하였다. 이 항해보고서는 1850년 프랑스 해군수로부의 발표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

58) 일개 어선의 항해였지만 프랑스 해군성 당국은 독도 발견 내용을 중요시하여 『수로지』

으로 각종 세계지도에 표기되기 시작했다(그림 9).

당시 서양에서는 독도의 첫 발견을 프랑스로 인정하였고 지도 제작자들도 ‘리앙쿠르’란 명칭을 애용했는데 이것은 그 시기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영향력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지도의 힘이였다.

한편 러시아의 군함들도 우리나라 해역을 넘나들었다. 1854년에 러시아의 푸자친(Putiatin) 해군중장이 이끈 함대는 동해와 남해를 항해하였다. 기함 팔라다호(Pallada)호와 보스토크(Vostok)호 및 올리부차(Olivutsa)호 등을 이끌고 내려왔고 1854년 3월에 독도를 발견하였다. 푸자친은 동도와 서도에 각각 메넬라이(Menelai)와 올리부차(Olivutsa)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전체에 메넬라이 앤드 올리부차 록스(Menelai and Olivutsa Rocks)라고 표기하였다.⁵⁹⁾ 1855년 25일에는 영국 군함 호넷(Hornet)호 함장 찰스 코링톤 포시스(Charles Codrington Forsyth)가 배의 이름을 따서 ‘Hornet Island’ 또는 ‘Hornet Rocks’로 명명하였다.

(1850년판, 1851년 발간)에 실었다.(이진명, 2005, 전게서, p.59. 참조.)

59) 김학준, 2009, 전계논문, p.311.

5. 울릉도(Oulangto)와 우산도(Ousan)

우리나라 고유의 명칭이 등장한 서양 고지도는 1855년 파리에서 발행된 『지리학회지(*Bulletin de la Societe de Geographie*)』에 실린 말트브링(Malte-Brun)의 한국지도(*Corée*)이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 발음으로 ‘Oulangto · Ousan’으로 표기했다(그림 10).

1846년에 김대건 신부가 제작한 《한국지도》에도 ‘Oulangto’와 ‘Ousan’으로 표기되어 있다.⁶⁰⁾ 우리나라의 고유 명칭인 울릉도(鬱陵島)와 우산도(于山島)가 서양 고지도에 표기된 것은 19세기로 고증된다.

서양 고지도 속에 나타나는 울릉도·독도 명칭인 ‘Oulangto’와 ‘Ousan’의 표기는 19세기에 제작된 우리나라 고지도와 비교해 보아도 일맥상통한다.

19세기 이후 20세기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을 살펴보면, 울릉도의 표기는 울릉도(鬱陵島)와 울도(鬱島)로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독도의 표기는 우산도(于山島)와 우산(于山)로 표기했으며 우리나라 고지도에는 독도를 주로 우산(于山)으로 표기하였다.⁶¹⁾ 그리고 우리나라 발음의 영문 표기인 ‘Ousan’으로 나타나면서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명으로 표기된다.

60) 김지영, 2003, 개항기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1.

61) 한국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의 명칭을 살펴본 결과 19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나타난 총 34종의 지도에서 ‘于山島’ 표기가 3종, ‘于山’ 표기가 14종, ‘Ousan’ 표기가 1종으로 조사됐다.(김지영, 2003, 전제논문, p.41. 표 1. 참조.)



(울릉도·독도 부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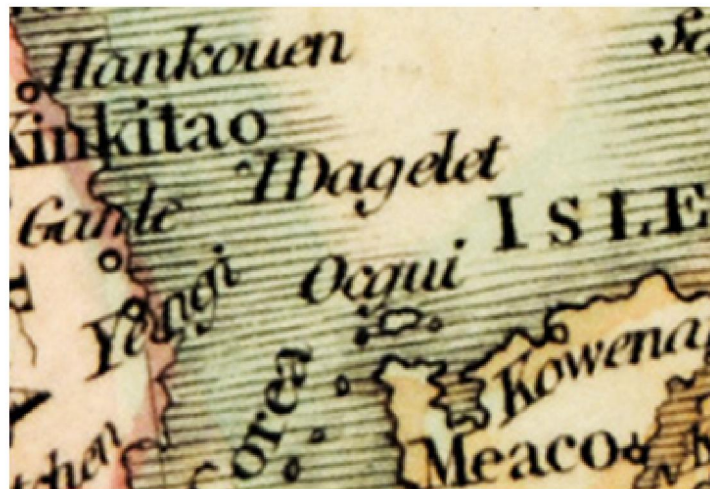


그림 5. 아시아지도(A New Map of ASIA from the Lastest Authorities)
1811년, 영국, John C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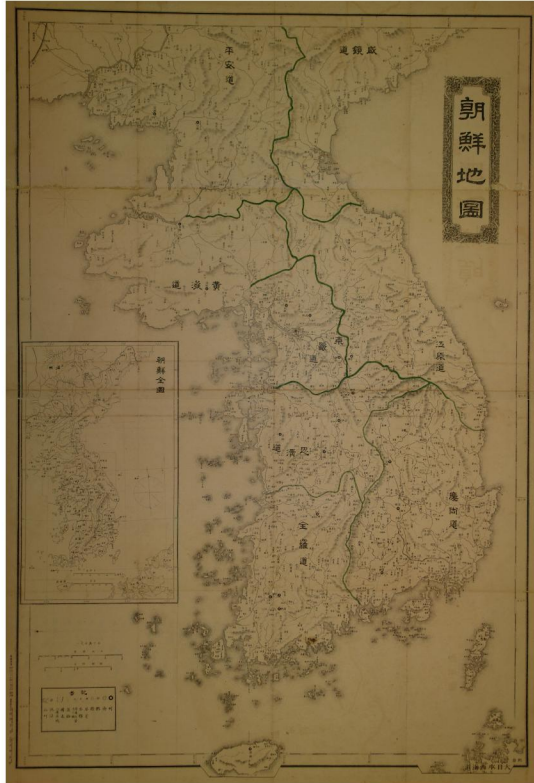
(울릉도 · 독도 부분 확대)



그림 6. 아시아지도(*ASIE Orientale Comprenant L'Empire Chinois et la Japon les ETATS DE L'INDO-CHINE et le GRAND ARCHIPE DA'SIE*)⁶²⁾

1862, 프랑스, ANDRIVEAU-GOUJON

62) 지도상의 표기 그대로 옮김



(울릉도·독도 부분 확대)



그림 7. 朝鮮地圖

1894년, 中村芳泰 編, 78.1cm×52.2cm, 토지주택박물관 소장(유물번호, 28022)

주 : 축척 1:1,000,000이다. 《朝鮮地圖》에는 동해상에 울릉도에 해당하는 竹島가 있으나 삼도〈朝鮮全圖〉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해당하는 竹島와 松島가 있다. 이는 원래 제작하기로 한 지도 크기로는 위치상 독도를 표기할 수 없어서 삼도〈朝鮮全圖〉를 추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울릉도·독도 부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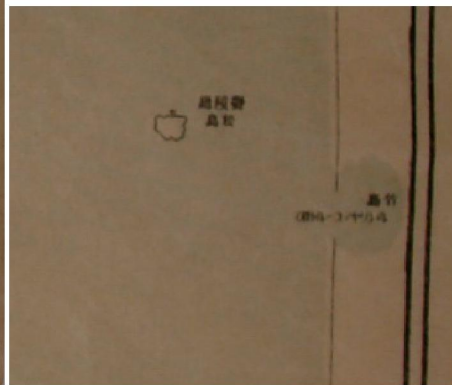


그림 8. 韓國全圖

1905년, 齊木寬直 編, 52.4cm×39.7cm, 토지주택박물관 소장(유물번호, 16489)

주 : 《韓國全圖》는 『일로전쟁실기(日露戰爭實記)』 제 76편 부록으로 동경 박물관에서 발행한 지도이다. 축척은 1:1500000이고 막대식은 ‘리’ 단위로 되어 있다. 울릉도는 ‘鬱陵島’와 그 아래 ‘松島’로 2개의 명칭이 표기되어 있다.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 독도는 ‘竹島’와 그 아래에 ‘리양코루도암(リヤンコルト岩)’이 병기되어 있다.



(울릉도·독도 부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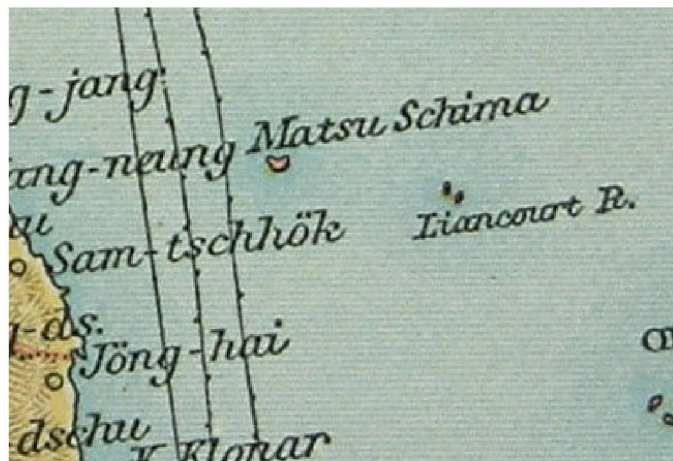


그림 9. 동아시아지도(Übersichtskarte von China und Japan)

1890년, 독일, Kirchner



(울릉도 · 독도 부분 확대)



그림 10. 한국지도(Corée)

1855년, 프랑스, Andre Kim,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제3장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서양 고지도 속의 울릉도 · 독도

제1절 16세기 서양 고지도 속의 울릉도 · 독도

서양인들이 만든 지도에 우리나라가 나타난 것은 16세기 말부터이지만 울릉도와 독도가 분명하게 표시된 지도는 1710년대에 프랑스의 신부로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던 레지(Regis, 雷孝思)가 만든 지도이다. 서양의 지도제작자들이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지도를 참고하였더라도 16세기에는 우리나라의 존재와 형태만을 인식하였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상세한 표기의 지도제작은 없었다.

16세기 서양 고지도의 울릉도 · 독도의 표기에 대한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지도로 전체사진 및 세부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총 983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총 983종 중에 제작년도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에 있는 16세기 지도는 총 33종으로 이들 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도를 대상지역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아시아지도(Asia, Asia Map) 8종, 세계지도(World, World Map) 3종, 한중(China &

Korea)지도 8종, 한중일(Far East; China, Korea, Japan)지도 1종, 한일 (Japan & Korea)지도 11종으로 나타났다. 지도의 유형을 확인할 수 없는 지도가 2종으로 나타났다.

제작자별 분류 결과로는 Ortelius의 제작이 12종, Ortelius & Barbuda의 공동 제작이 1종, Sebasitian의 제작이 1종, Cornelius의 공동 제작이 1종, Ortelius & Teixeira의 공동 제작이 1종, Mercator의 제작이 1종, Hendrick의 제작이 1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Van Loon & Johannes와 Valk & Schenk의 공동제작이 1종, Hondius의 제작이 1종, Kaerius의 제작이 1종, Vander의 제작이 1종, Ortelius의 제작이 1종, De Roy의 제작이 1종, Jacques의 제작이 1종, 제작자 미상이 3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Ortelius⁶³⁾가 제작한 지도가 12종으로 36.3%를 보여 본 연구에 이용된 16세기 서양 고지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제작년도 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63) 존 클라크 외 지음·김성은 역, 2005, 지도박물관, 웅진지식하우스, pp.152~155. 참고.
: 오르텔리우스는 동시대의 인물인 메르카토르의 영향을 받아 나뵈대로의 지도를 판각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지도학적 업적은 세계지도의 제작(1564)이고, 1566년 『세계의 무대(Theatrum Orbis Terratum)』라는 지도책(Atlas)을 제작하였다. 라틴어로 출판되었으나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영어로 번역되었고 전세계의 도서관과 수집가들 손에 다양한 판형으로 현존한다.

표 2. 16세기 서양 고지도의 제작년도별 현황

	제작년도(Year)별 분류	지도 수
1	1522	1
2	1570	3
3	1572	1
4	1573	1
5	1584	3
6	1588	1
7	1589	1
8	1590	1
9	1593	1
10	1595	8
11	1596	2
12	1597	1
13	1600	9
합계		33

제작년도별 분류⁶⁴⁾로는 1522년에 제작된 지도 1종, 1570년에 제작된 지도 3종, 1572년에 제작된 지도 1종, 1573년에 제작된 지도 1종, 1584년에 제작된 지도 3종, 1588년에 제작된 지도 1종, 1589년에 제작된 지도 1종, 1590년에 제작된 지도 1종, 1593년에 제작된 지도 1종, 1595년에 제작된 지도 8종, 1596년에 제작된 지도 2종, 1597년에 제작된 지도 1종, 1600년에 제작된 지도 9종으로 나타났다. 그 중 1595년과 1600년에 제작된 지도가 전체의 51.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64)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에서 각 지도의 제작년도는 상세설명의 'Year'를 확인하였다.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16세기 지도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표기를 검토한 결과, 16세기에 제작된 지도에서는 울릉도·독도 표기 및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시기 대표적으로 한국이 그려진 혼디우스와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지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될 정도의 지리적인 정보는 부족하였고 우리나라를 ‘섬’이나 ‘반도’로 인식하는 정도에 그쳤다(그림 11).



그림 11. 일본지도(*Iaponiae Insulae Descriptio*)
1595년, 네덜란드, Ortelius & Teixeira

따라서 그림 1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섬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모습이 매우 크게 그려져 있어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유럽인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제2절 17세기 서양 고지도 속의 울릉도·독도

16세기부터 17세기 서양 고지도에 중국과 일본은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16세기 말부터 우리나라를 ‘섬’이나 ‘반도’로 인식하였다. 17세기의 세계 지도와 아시아 지도, 한일 지도 등에서도 우리나라는 섬이나 반도로 표현되어 있고 주변의 섬들은 주로 남해안에 그려져 있다. 남해는 일본으로 향하는 통과해역이기도 하고, 제주도에 표류했던 네덜란드 출신 하멜의 표류기의 영향으로 서양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는 서양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아 지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17세기 서양 고지도의 울릉도·독도의 표기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에서 전체 및 세부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983종의 지도를 대상으로 울릉도·독도의 표기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 총 983종 중 제작년도가 불분명한 것을 제외한 총 213종의 서양 고지도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먼저 지도를 대상지역에 따라 분류하면, 아시아지도(Asia, Asia Map) 57종, 세계지도(World, World Map) 31종, 한중(China & Korea)지도 52종, 한중일(Far East; China, Korea, Japan)지도 20종, 한일(Japan & Korea)지도 49종, 일본(Japon)⁶⁵⁾ 지도 1종으로 나타났다. 지도의 유형을 확인할 수 없는 지도는 3종이다. 또한 제작시기별로 분류하면 <표 3>과

65)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같다. 제작년도별 분류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시기는 1673년에서 1696년 사이로, 전체 지도의 28.6%를 차지한다.

표 3. 17세기 서양 고지도의 제작년도별 현황

	제작년도(Year)별 분류	지도 수
1	1601~1630	33
2	1631~1650	37
3	1651~1670	58
4	1671~1699	61
5	1700	24
	합계	213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17세기 지도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표기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13종의 지도를 조사했지만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표기 및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리적 정보의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형태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그림 13).

17세기는 서양과 동양이 접촉하는 시기로 서양에서 유입된 지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의 지도가 크게 변하는 시기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648년에 제작된 Blaue의 대형 세계지도(도쿄국립박물관 소장)와 1658년에 제작된 Janssonius의 일본지도를 보아도 한반도는 섬으로 나타나 있다.⁶⁶⁾

66) 미요시 다다요시, 2009, 서양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와의 만남과 수용, 세계지도 속의 동아시아 (고지도국제학술대회 학술집) 논고 번역, pp.104. 참조.



그림 12. 세계지도(*Nova Totius Terrarum Orbis*)속의 우리나라
1643년, 프랑스, Tavernier



그림 13. 아시아지도(*Asia Recens Fummacura Delineata*)속의 우리나라
1631, 네덜란드, Jansson-Hondius

제3절 18세기 서양 고지도 속의 울릉도·독도

서양인들이 만든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분명하게 표시된 지도는 1710년대에 프랑스의 신부로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던 레지(Regis, 雷孝思)가 만든 지도이며, 이후 당빌의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된다. 독도를 ‘Tchian-chan-tao’로 표기한 것은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잘못 읽어서 ‘Tchian-chan-tao’로 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8세기 당빌 지도에 와서야 형태가 비교적 정확해진다.

18세기 서양 고지도의 울릉도·독도의 표기에 대한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에서 전체사진 및 세부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총 983종을 대상으로 울릉도·독도의 표기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 중 제작년도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하고 추출한 결과, 총 460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이용된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18세기 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도를 대상지역에 따라 분류하면, 세계지도(World, World Map) 66종, 유럽과 아시아(Europe & Asia)지도 5종, 아시아지도(Asia, Asia Map) 189종, 한중일(Far East; China, Korea, Japan)지도 27종, 한중(China & Korea)지도 99종, 한일(Japan & Korea)지도 43종, 한국(Korea)지도 14종, 일본(Iapon)⁶⁷⁾ 지도 7종, 지도의 유형을 확인 할 수 없는 지도는 10종으로 한중일(Far East; China, Korea, Japan) 지도가 가장

67) 일본의 명칭은 처음에 IAPON이었다가, JAPON에서 JAPAN으로 변한다.

많았다.

제작년도 분류별 결과는 다음<표 4>와 같다. 1771년부터 1799년 사이에 제작된 고지도가 전체의 43%로 나타났다.

표 4. 18세기 서양 고지도의 제작년도별 현황

	제작년도(Year)별 분류	지도 수
1	1701~1730	73
2	1731~1750	98
3	1751~1770	82
4	1771~1799	198
5	1800	9
	합계	460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에서 살펴본 18세기 지도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표기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460점의 18세기 지도 중 지도에 울릉도·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거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도, 또 사진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지도를 제외하면, 울릉도·독도의 명칭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는 72종이다.

울릉도·독도의 명칭 표기가 확인된 지도 72종을 통해 18세기 서양 고지도 속의 울릉도·독도의 명칭 표기를 분석한 결과 'Fan-Ling-tao·Tchian-Chan-tao' 표기와 두 섬의 형태만 표시된 것, 그리고 'Fan-Ling-tao·Tchiang-Chan-tao' 표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 3가지를 대표 유

형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는 ‘Fan-Ling-tao · Tchian-Chan-tao’ 표기 유형이다(그림 14).

울릉도와 독도는 관링타오(Fan-Ling-tao)와 찬찬타오(Tchian-Chan-tao)로 표기되어 있고 독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Fan-Ling-tao · Tchian-Chan-tao’ 표기 유형의 지도는 15종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ée*)

1737, 프랑스, D'anville & J.B.Bourguignon

두 번째는 두 섬의 형태만 표시된 유형이다(그림 15).

울릉도와 독도는 명칭 표기 없이 윤곽만 그려져 있고 두 섬의 모양과 위치는 당빌 지도와 유사하다. 이렇게 두 섬의 형태만 표시된 유형의 지도 역시 15종으로 확인됐다. 그림 15의 한일지도(*Carte du Japon et de*

la Coree)에 표현된 두 섬은 울릉도·독도로 추정된다. 두 섬의 명칭은 쓰여있지 않으나, 그림 14의 당빌 지도와 거의 동일한 위치에 두 개의 섬이 나란히 그려져 있어 후대에 지도를 제작하면서 당빌 지도를 저본으로 모사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5. 한일지도(*Carte du Japon et de la Coree*)
1743, 프랑스, Crepy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그림 14와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그림 15는 모두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지도 제작자와 제작 시기는 다르지만 울릉도와 독도를 나타내는 두 섬 모두 동해안 내륙 가까이에 그려져 있다.

위의 두 지도는 울릉도를 기준으로 서쪽, 즉 내륙쪽(영일만, Pinghai)에

위치하고 있다. 육안으로 볼 때 크기와 모양은 비슷하고 울릉도 바로 아래에 독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유형과 비슷한 ‘Fan-Ling-tao · Tchiang-Chan-tao’ 표기 유형이다(그림 16).

울릉도는 판링타오(Fan-Ling-tao)로 표기가 같지만 독도는 창찬타오(Tchiang-Chan-tao)로 철자 ‘g’가 붙어 부드러운 발음으로 표기되었다. ‘창찬’은 독도의 옛 명칭 우산(于山)의 중국식 발음이다. ‘Fan-Ling-tao · Tchiang-Chan-tao’ 표기 유형의 지도는 10종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당빌 지도가 서양 지도 제작자들에게 보급 및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울릉도 표기는 대체적으로 일괄적이거나 독도 표기에서 작은 차이점들이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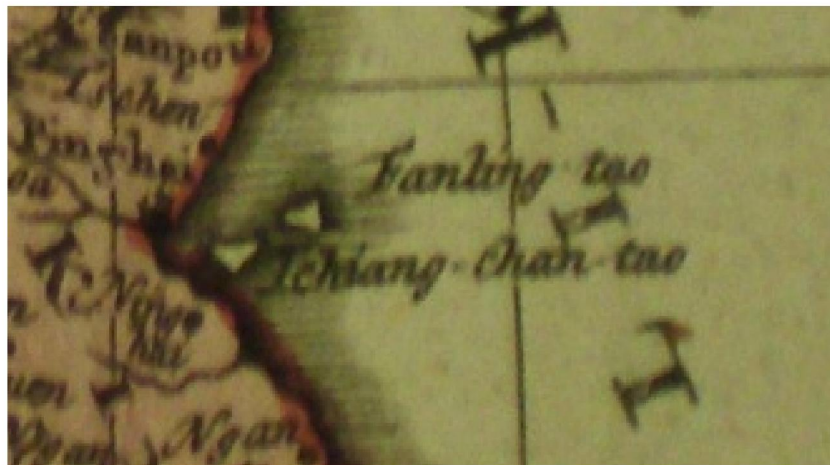


그림 16. 한일지도(*et des Rojaumes de Coree et de Iapan*)
1732년, 독일, Homann

18세기 서양 고지도 상에는 당빌의 지도에 표기된 ‘Fan-Ling-tao · Tchian-Chan-tao’ 를 기본형으로 하면서도 발음과 표기에 일부 차이가 있는 독도 관련 지명들이 있어 주목된다. 즉 찬산도(Tchan-shan-tao), 찬산도(Tchian-san-tao), 찬산도(Tchian-shan-tao), 창찬도(Chiang-Chan-Tao), 창산도(Chiang-san-tau), 창산도(Tchiang-san tau), 환산도(chyan-shan-tau), 찬찬도(chian-chan-tao) 찬찬도(Tchian-chan-tao) 등의 지명들이 확인되는데, 이에 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다양한 표기는 제작 국가에 따른 표기일 가능성, 지도 제작자가 선호하는 표기형식으로 인한 가능성, 지도 제작자에 의한 표기 기재 실수일 가능성, 지도 제작자의 발음상 편의를 우선시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유력한 이유로 발음상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18세기 지도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표기 유형 중 찬찬타오(Tchian-Chan-tao)의 다양한 표기까지 포함했을 때 ‘판링타오(Fan-Ling-tao) · 찬찬타오(Tchian-Chan-tao)’ 표기 유형(총 60종)은 전체의 83.3%를 차지해 압도적이다.

기타 사항으로는 다즐레의 등장으로 ‘Dagelet’ 표기가 함께 나타난 것이다. 즉 18세기 서양 고지도 일부에서 판링타오(Fan-Ling-tao)와 찬찬타오(Tchian-Chan-tao)의 다양한 표기를 포함한 독도 표기와 울릉도 표기인 ‘Dagelet’가 함께 나타났고 동해안에 3개의 섬으로 표기되었다(그림 17).



그림 17. 중국지도(*China, Contains 15 Subject Provinces, including the 2 Islands of Hainan, Formosa and the Tributary*)
1790, 영국, Anon ? English

1790년에 제작된 중국지도에서 울릉도는 'Fanlin'으로 독도는 'Fanlin'의 서쪽에 '작은 점'의 형태로 나타났다. 울릉도는 판링타오(Fan-Ling-tao)를 'Fanlin'으로 간략하게 축약한 형태로 표기했고 다즐레의 발견(1787)으로 울릉도 표기 'Dagelet'가 함께 표기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지리적 지식이 지도상에 반영되어 있다.

제4절 19세기 이후 제작된 서양 고지도 속의 울릉도·독도

19세기에는 서양인들이 직접 탐사를 통해 독도를 발견함에 따라 울릉도·독도 표기에 혼란이 찾아온다. 서양의 주요 해양국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 그리고 미군의 해군 함정들에 의해 세계의 모든 해역이 탐사 및 측정되면서 이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독도가 발견되었다.⁶⁸⁾

각 나라에 의해 독도(獨島)가 발견되면서 동시에 다양한 이름이 붙여지고 일본식 명칭도 나타났다.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고지도 속에 서양식 이름으로 다양하게 표기된다. 마치 자신의 얼굴 면서부단히 찾으려는 것처럼 계속해서 독도의 명칭이 지도상에 표기된다.

19세기 서양 고지도의 울릉도·독도의 표기에 대한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지도 중에 제작년도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하고 1801년부터 1935년까지의 지도 총 242종을 조사하였다.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에서 살펴본 19세기 이후에 제작된 지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도를 대상지역에 따라 분류하면, 세계지도(World, World Map) 17종, 유럽과 아시아(Europe & Asia)지도 2종, 아시아지도(Asia, Asia Map) 75종, 한중일(Far East; China, Korea, Japan)지도 34종, 한중(China & Korea)지도 49종, 한일(Japan & Korea)지도 41종, 한국

68) 이진면, 2005, 전계서, p.11. 참조

(Korea)지도 21종, 지도의 유형을 확인 할 수 없는 지도가 3종으로 한중일(Far East; China, Korea, Japan) 지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제작년도 분류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제작년도별 분류 결과는 1801년부터 1935년까지 제작년도를 나열했을 때 242번까지 나타나 이를 간단하게 구분지어 정리하였다. 1801년부터 1830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가 79종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해 가장 많다.

표 5. 19세기 서양 고지도의 제작년도별 현황

	제작년도(Year)별 분류	지도 수
1	1801~1830	79
2	1831~1850	62
3	1851~1870	65
4	1871~1900	24
5	1901~1935	12
	합계	242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에서 살펴본 19세기 지도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표기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지도 총 242종 중에서 울릉도·독도의 명칭이 표기되고 확인이 가능한 지도 121종을 통해 18세기 서양 고지도 속의 울릉도·독도의 표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울릉도 표기인 ‘Argonaut I. · Dagelet I.’가 표현된 것, 둘째 유형은 두 섬의 윤곽만 표시된 것, 그리고 세 번째로

‘Argonaut I.(Taka Shima), Dagelet I.(Matsu Shima) · Hornet I.’ 로 서양식과 일본식 지명이 병기된 표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 3가지를 대표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는 ‘Argonaut I. · Dagelet I.’ 표기 유형이다(그림 18).

‘아르고노트’와 ‘다즐레’는 모두 울릉도의 명칭으로 다즐레는 1787년 발견 이후에 나타나고 아르고노트는 콜넷(1791)과 브루톤(1797)의 탐사 뒤 1810년부터 1850년 무렵까지 나타난다. 지도상에서 아르고노트는 다즐레의 북서쪽에 등장한다. 그러다가 존재여부가 확인되어 1860년대 이후 지도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이용된 그림 17에서는 1870년에 Bartholomew가 제작한 중국지도(CHINA)지도에서는 ‘Fan-Ling-tao’와 ‘Tchian-Chan-tao’는 사라지고 ‘Argonaut I. · Dagelet I.’가 여전히 동해 상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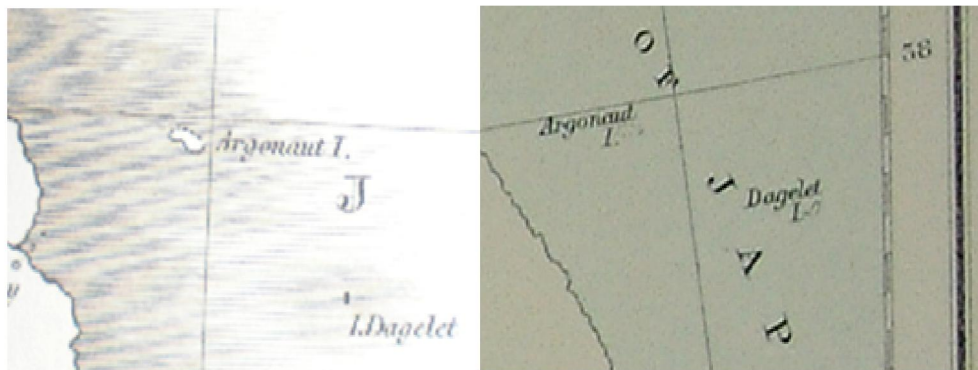


그림 18. 일본지도(JAPAN, 좌, 1815, 영국, Aaron Arrowsmith)와 중국지도(CHINA, 우, 1870, 영국, Bartholomew)

두 번째는 ‘Argonaut I. · Dagelet I.’와 같은 서양식 울릉도 명칭과 ‘Fan-Ling-tao’ 및 ‘Tchian-chan-tao’가 함께 기재된 울릉도 · 독도 표기 유형이다(그림 19). 18세기부터 나타난 판링타오(Fan-Ling-tao)와 찬찬타오(Tchian-chan-tao) 표기 유형은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지도상에 나타난다.

본 연구에 이용된 19세기 서양 고지도 중에서는 1855년에 영국의 John Tallis가 제작한 한일지도(*Japan and Corea*)에서 판링타오(Fan-ling-tao)가 아르고노트와 다줄레와 동해상에 함께 나타났고 그 이후에 제작된 지도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세 번째 ‘Argonaut I.(Taka Shima), Dagelet I.(Matsu Shima) · Hornet I.’ 표기 유형이다(그림 20). 이것은 시볼트의 잘못된 해석⁶⁹⁾으로 지도상에 나타났는데 아직 아르고노트는 사라지지 않았고 독도의 표기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림 20의 표기 유형에 독도가 ‘Hornet Is(410 feet)’으로 표기되었다.

본 연구에 이용된 19세기 서양 고지도 중 1835년부터 1924년까지의 16종에서 독도의 표기가 ‘Liancourt Rocks(Hornet Is)’ 또는 ‘Hornet Is.’로 복수 형태로 나타났다.

69) 본 논문 27쪽 내용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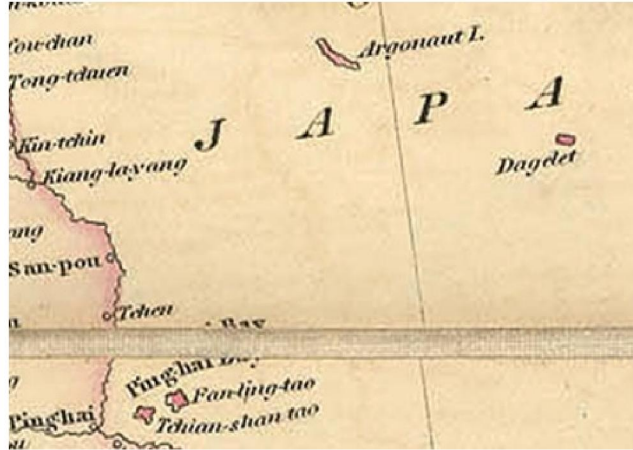


그림 19. 한중지도(*Map of China compiled from original surveys & sketches*)
1840, Ja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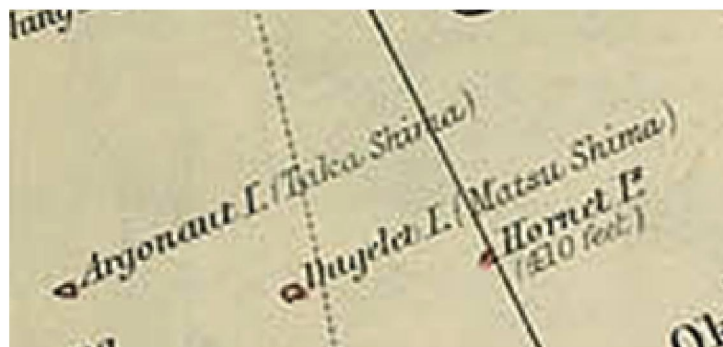


그림 20. 한중일지도(*Stanford's Map of the Empires of China and Japan with
the adjacent parts of The Russian Empire, Ind*)
1904, 영국, Standford, Edward

네 번째는 ‘Oulangto · Ousan’ 표기 유형이다. 1872년 프랑스의 Hausermann가 제작한 한국지도(*CORÉE*)에서는 ‘Oul-neung-do(Is. DAGELET)’와 ‘Ou-San’으로 표기되었고, 1870년 Zuber가 제작한 한국지도(*Carte de Coree*)는 ‘I. Dagelet ou Oul-leung’로 우리나라 발음으로 표기되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할 만한 표기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총 121점을 조사하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표기 유형이 나타났다.



그림 21. 일본지도 (JAPAN, DAI NIPPON)

1890, 영국, John Bartholomew

그림 21은 독도는 ‘Liancourt Rks’의 표기와 함께 2개의 작은 섬으로 나타났고 울릉도인 마츠시마가 가장 크게 그려져 있다. 그런데 사라져야

할 아르고노트 자리에 ‘Taku I.’의 표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John Bartholomew는 지도를 제작할 때 가상의 섬이었던 아르고노트에 ‘Taku I.’를 표기했는데 발음상의 차이는 크지만 타케시마의 변형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판링타오의 변형어로 울릉도를 나타내는 ‘Finta I. · Dagelet I.’ 표기 유형도 나타났다(그림 22). ‘Finta I. · Dagelet I.’ 표기 유형은 지도 1종에서 확인했으며, 위치상 아르고노트 자리인 ‘다즐레’의 북서쪽에 표기되어 있다.



그림 22. 중국지도(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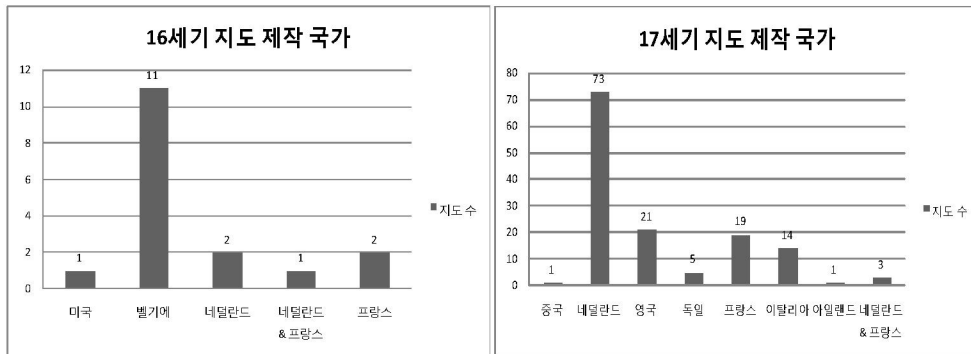
1834, 미국, Samuel Walker

제4장 서양 고지도 제작 국가별 울릉도·독도 표기

제작 국가별로 울릉도·독도 표기에 관해 살펴보고자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지도 983종 중에서 16세기에 해당하는 지도 33종과 17세기에 해당하는 지도 213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6세기 서양 고지도의 제작 국가별 분포도⁷⁰⁾에서는 벨기에에서 제작된 지도가 11종으로 조사되었고, 17세기 서양 고지도의 제작 국가별 분포도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지도가 73종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6>.

표 6. 16~17세기 지도 제작 국가별 현황



서양의 지도 제작은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양의 지도들이 생산 및 유통

70) 본 논문의 <표 6>에서부터 <표 8>까지 서양 고지도의 제작 국가별 분포도의 내용은 울릉도와 독도 표기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된 총 지도수에 관한 것으로 울릉도와 독도 표기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도 모두 포함되었다.

통되면서 16세기 중반 이후에 번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16세기 지도 중 벨기에에서 제작된 지도 11종에서는 모두 앤트워프(Antwerp) 또는 앤트워프, 벨기움(Antwerp, Belgium)으로 국가가 표시되어 있었다.

벨기에 북서부에 위치한 앤트워프는 오늘날 유럽 제 3의 항구도시로서 벨기에 교역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가 공식어로 사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들도 네덜란드어명과 프랑스어명을 동시에 갖고 있다. ‘Antwerp’는 영어식 지명으로 앤트워프(Antwerp)라고 하고 네덜란드어로는 안트베르펜(Antwerpen) 프랑스어로는 앙베르(Anvers)라는 지명으로 통한다.⁷¹⁾

‘Antwerp’는 독일, 프랑스, 영국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일찍이 중계무역항이 되었다. 16세기 전반에 이르러서는 에스파냐의 신대륙 무역과 포르투갈의 동인도 무역으로 유럽 제 1의 무역항으로 성장하였으나 네덜란드 독립전쟁 때 암스테르담에 그 지위를 빼앗겼다.

당시 해상 무역에 기반을 둔 급속한 경제 발전 시대에 지도는 세계 무역 지배의 상징이면서 실질적으로도 중요하였다. 17세기 유럽 열강들이 해양 탐험에 나서면서 최일선에 선 나라가 네덜란드 주연합이었다.

네덜란드는 1568년부터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고 때마침 세력이 기운 포르투갈 제국으로부터 중요한 무역로와 무

71) 양철준, 2006, 세계의 도시 97; 유럽의 3대 항구도시, 앤트워프(Antwerp), 국토 2006년 9월호 (통권 299호), p.75.

역소의 통제권을 빼앗으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유럽 상업의 중심지가 바뀌면서 이와 맞물려 <표 6>의 결과와 같이 16세기에 가장 활발했던 벨기에의 지도제작은 17세기에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당시 지도 제작의 중심(국가)의 변화상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 사용된 17세기 지도 중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지도 73종에서는 암스테르담(Amsterdam) 또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Amsterdam, Netherland)로 국가와 지도 제작이 활발했던 중심 도시가 표시되어 있었다.

네덜란드는 1550년부터 17세기 말 무렵까지 ‘네덜란드(상업적) 지도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지도 제작이 활발했고 특히 암스테르담에서 제작된 지도는 좋은 품질을 인정받았다. 더욱이 헤르하르뒤스 메르카토르(Gerhardus Mercator, 1512~1594)와 빌렘 얀스존 블라우(Willem Janszoon Blaeu, 1571~1638) 등의 저명한 지도 제작자를 배출한 국가로 <표 6>을 통해서도 당시 활발한 지도 제작술을 가늠케 한다.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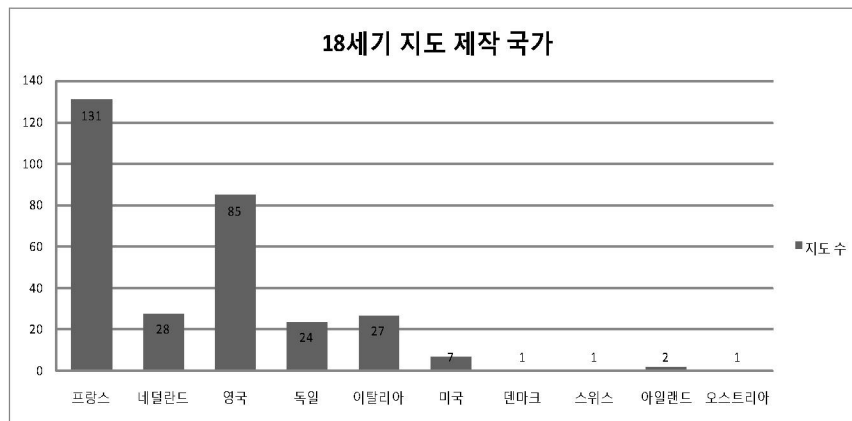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영토 확장과 대륙의 탐험을 위해 공간정보의 전달 필요성으로 지도가 더욱 발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18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해군력과 지도의 정보를 가지고 탐험에 나섰다.

따라서 지도 제작 국가와 지도 수를 살펴보는 것은 당시 서양인들의 지리적 인식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지 그 파급력을 추측해 볼 수 있는

72) 서정철·김인환 기증 서양 고지도 특별전, 2004, 논고: 네덜란드 지도학과 한국, pp. 201~212. 서울역사박물관 참조.

단초가 된다. 한편 프랑스는 18세기에 해당하는 서양 고지도 총 460종 중 131종을 제작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 제작 국가별 지도 수는 <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 18세기 지도 제작 국가별 현황



다음으로 제작 국가별로 울릉도·독도 표기에 관해 확인하고자 파인드 코리아 웹사이트상의 지도 총 983종 중 18세기에 해당하는 460종 중에서 울릉도·독도의 명칭이 표기된 72종을 분석하였다. 총 72종의 지도 중에서 서첫 번째 ‘Fan-Ling-tao · Tchian-Chan-tao’ 표기 유형의 경우 국가별 지도 제작 수는 프랑스가 5종, 영국이 5종, 이탈리아가 3종, 아일랜드 1종 순으로 나왔다.

‘Fan-Ling-tao · Tchian-Chan-tao’ 표기가 가장 먼저 나타난 지도는 프랑스 지도로 1737년에 D’Anville이 제작한 한국지도(*Royaume de Corée*)

이다. 이어서 프랑스에서는 1750년 Gilles Robert de Vaugondy가 제작한 한일지도(*L'Empire du Japon*)와 1771년 Rigobert Bonne이 제작한 한중지도(*Carte De La Tartarie Chinois China*)에서 같은 표기가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1775년 작자 미상의 한중지도(*The empire of China*)와 1794년 Robert Sayer가 제작한 한일지도(*The Empire of Japan*)에서도 같은 표기가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지도에서도 'Fan-Ling-tao · Tchian-Chan-tao' 표기 유형이 나타났다. 1778년 Paolo가 제작한 한일지도(*L'Empire du Japon*)와 1797년 Cassini가 제작한 한일지도(*Le isole del Iappone e la Corea*)에서 같은 표기가 나타났다.

두 번째는 두 섬의 형태만 표시된 경우 국가별 지도 제작 수는 프랑스가 13종, 영국이 2종 순으로 나왔다. 두 섬의 형태만 표시된 경우 Jacques Nicolas Bellin과 Crepy, Didier Robert de Vaugondy, 1797년 Cassini의 지도에까지 이어졌다.

영국에서 제작한 지도로는 1747년 Emanuel Bowen이 제작한 아시아지도(*A New and Accurate Map of China Asia*)에 가장 먼저 나타났다.

세 번째 'Fan-Ling-tao · Tchiang-Chan-tao' 표기 유형의 경우 국가별 지도 제작 수는 독일 5종, 프랑스 3종, 영국 2종 순으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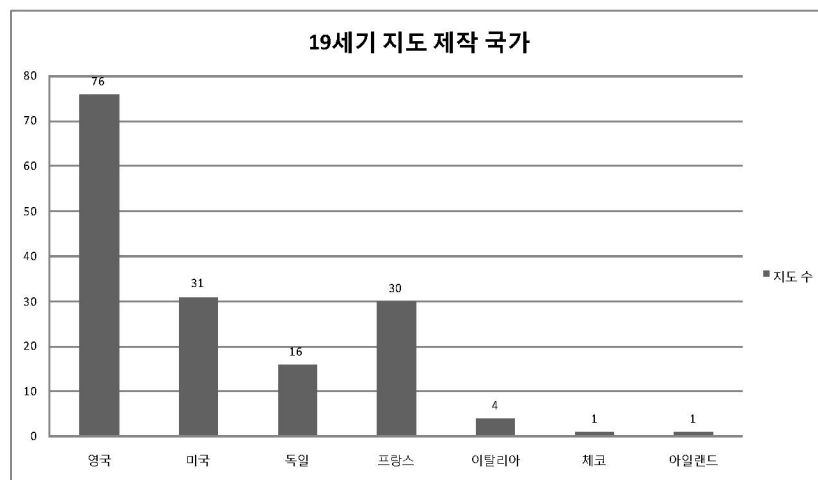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독일에서 제작한 지도는 모두 Homann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Homann에 의해 제작된 지도 중 한일 지도(*Generale de la Tartarie Chinoise et des Ryaumes de COREE el de IAPON*)에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했는데 'Fan-Ling-tao · Tchiang-Chan-tao' 표기 유형

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표기는 1732년부터 1750년까지 Homann의 지도에서 계속 나타났다.

18세기 서양 고지도 속의 울릉도와 독도 표기는 명칭과 위치 모양 등이 당벌 지도의 표현기법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와 영국, 독일에까지 울릉도·독도의 지리적 인식이 지도에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발견과 다양한 명칭 표기가 나타나는 19세기 이후 서양 고지도 총 242종 중 울릉도·독도 표기가 있는 121종을 분석하였다. 19세기에 영국은 총 121종 중 76종을 제작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세기 이후 지도 제작 국가별 지도 수는 다음 표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표 8>.

표 8. 19세기 지도 제작 국가별 현황



또한 제작 국가별로 울릉도·독도 표기에 관해 확인하고자 파인드코리

아 웹사이트상의 19세기에 해당하는 지도 총 242종 중 울릉도·독도의 명칭이 표기된 지도 121종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Argonaut I. · Dagelet I.’ 울릉도 표기 유형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도 수는 27종으로 가장 많았고 제작 국가로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로 골고루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이용된 미국에서 제작(1845, 1868년)한 지도에서는 두 개의 울릉도 섬 주변에 독특한 표현 기법이 나타났다(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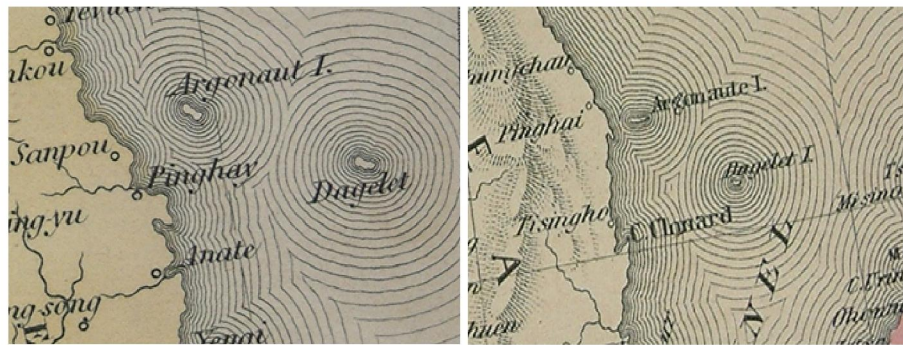


그림 23. 중국지도(CHINA, 좌, 1845, 미국, Henry Schenck Tanner)와 한중일 지도(JOHNSON'S CHINA and JAPAN, 우, 1868, 미국, Johnson)

두 번째 ‘Fan-Ling-tao · Tchiang-Chan-tao’ 표기가 19세기 이후에도 당벌 지도 기법이 동해상에 나타나거나 ‘아르고노트·다즐레’와 함께 4개의 섬으로 나타났다. 주로 영국 지도에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영국에서 ‘Fan-Ling-tao · Tchiang-Chan-tao’ 표기 유형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1801년 John Cary가 제작한 아시아 지도(A New Map of China from

the Latest Authorities)이다. 이어 1855년까지 영국 지도 제작자들에 의해 표기된다.

세 번째 ‘Argonaut I.(Taka Shima), Dagelet I.(Matsu Shima) · Hornet I.’ 표기 유형이 독도의 서양 명칭인 리앙쿠르(Liancourt Rock)와 함께 표기되면서 동해 상에 5개의 표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독도의 위치는 울릉도를 기준으로 동쪽(동남쪽)에 나타나고 호넷(Hornet)으로 표기된다. 본 연구에 이용된 지도에서 독도 표기 방법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프랑스 명칭 ‘리앙쿠르’와 영국 명칭 ‘호넷’이 Liancourt Rks, Liancourt R, Hornet Is(410 feet)로 단독으로 표기되었거나 Hornet Is.(Liancourt Rocks), Liancourt Rock(Hornet IS)과 같이 프랑스 명칭과 영국 명칭을 동시에 붙인 경우이다. 이러한 표기 방법은 영국, 미국, 독일 지도에서 주로 나타났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에 있는 약 천여종의 서양 고지도를 대상으로 울릉도와 독도 표기에 관하여 제작 시기·국가별 분석하였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극동 아시아의 정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유럽사회에 전달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과 달리 유럽인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17세기까지 서양 고지도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형태만이 있을 뿐이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울릉도와 독도 표기가 확인되었다.

18세기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울릉도·독도는 ‘Fan-Ling-tao·Tchian-Chan-tao’ 표기와 두 섬의 형태만 표시된 것과 그리고 ‘Fan-Ling-tao·Tchiang-Chan-tao’ 표기가 가장 폭넓게 나타났고 두 섬의 위치는 모두 동해안 내륙쪽에 그려져 있었다. 특히 ‘Fan-Ling-tao’의 표기는 대체적으로 일괄적이거나 ‘Tchian-Chan-tao’의 경우 발음상의 작은 차이로 인해 다양한 표기가 발견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독도의 발견과 그에 따른 다양한 외국 명칭이 붙여졌다. 19세기 이후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울릉도·독도는 두 섬의 형태만 표시된 것과, 새로 울릉도 표기인 ‘Argonaut I.·Dagelet I.’와 울릉도·독도 표기인 ‘Argonaut I.(Taka Shima), Dagelet I.(Matsu Shima)·Hornet I.’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우리나라 고유명인 ‘Oulangto·Ousan’ 명칭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르고노트의 위치에 새로운 표기 유형 ‘Taku I.’가 발견되었다.

한편 지도 제작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 18세기에 나타난 ‘Fan-Ling-tao · Tchian-Chan-tao’ 표기의 경우 국가별 지도 제작 수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두 섬의 형태만 표시된 경우 국가별 지도 제작 수는 프랑스,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an-Ling-tao · Tchiang-Chan-tao’ 표기 유형의 경우 국가별 지도 제작 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19세기 이후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울릉도 ‘Argonaut I. · Dagelet I.’ 표기 유형의 경우 국가별 지도 제작 수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로 크게 나타났다. 그 중 미국에서 제작된 지도(1845, 1868)에서는 두 개의 울릉도 섬 주변에 독특한 표현 기법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울릉도 · 독도의 ‘Fan-Ling-tao · Tchian-Chan-tao’ 표기 유형이 당빌 지도와 유사하게 단독으로 동해상에 나타나거나, ‘아르고노트 · 다즐레’와 함께 4개의 섬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영국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Argonaut I.(Taka Shima), Dagelet I.(Matsu Shima) · Hornet I.’ 표기 유형은 ‘Hornet I.’ 대신 독도의 프랑스 명칭인 리앙쿠르(Liancourt Rock)가 표기되면서 동해안에 5개의 표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독도의 위치는 울릉도를 기준으로 동쪽(동남쪽)에 나타나고 ‘Oulangto · Ousan’ 표기 유형은 1850년대 이후 지도에서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 표기에 관하여 특정 웹사이트의 서양 고지도를 대상, 약 천여종의 서양 고지도를 제작 시기와 국가별로 살펴본 데에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서양 고지도에 대한 연구로 울릉도 · 독도 연구가 심화,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서정철, 1991, 서양 고지도와 한국, 서울, 대원사.
- 서정철 외, 2004, 서양 고지도 특별전, 서울역사박물관.
- 오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 지음·권오엽 역, 2004, 『獨島』, 제이앤씨(계명)
-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존 레니 쇼트, 2009, 지도, 살아있는 세상의 발견, 작가정신.
- 존 클라크 외 지음·김성은 역, 2005, 지도박물관, 웅진지식하우스.
- 최양식 외, 2007,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한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독도는 과연 일본 영토였는가?, 독도·해양
영토연구센터.

2. 학술지 및 학위논문

- 갈검웅, 2009, 중국의 역사지도, 세계지도 속의 동아시아(고지도국제학술
대회 학술집) 논고 번역, pp.22~25. 참조.
- 김기혁, 2006, 울릉도 고지도 유형 연구,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221~224.
- 김지영, 2003, 개항기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연구, 성신여대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열, 1997, 독도의 명칭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국방대학원. 9집(1997년 8월), pp. 333~629.
- 김병오, 1997, 독도의 명칭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양대 교육대학원.
-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지도에 표현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 연구, p. 184.
- 김학준, 2009,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1호, p.29.
- 미요시 다다요시, 2009, 서양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와의 만남과 수용, 세계지도 속의 동아시아(고지도국제학술대회 학술집) 논고 번역, pp.104.
- 박선영, 2004,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 중국사학회, p.201.
- 배성준, 2002, 울릉도·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진단학회.
- 배진수 외, 2009,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pp.19-21.
- 신용하, 1999, 독도·울릉도의 명칭변화 연구, 독도연구총서, 독도연구보전협회.
- 양보경, 1997, 고지도와 역사 연구, 역사와 현실 제26권, 한국역사연구회, pp.263-264.
- 양보경, 2005, 울릉도,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한국 고지도로 본 울릉도와 독도, 북방사논총 7호, 고구려연구재단, p.6.
- 양철준, 2006, 세계의 도시 97; 유럽의 3대 항구도시, 앤트워프(Antwerp),

- 국토 2006년 9월호(통권299호), p.75.
- 오인동, 2004, 초기 서양지도와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표기, (내일을여는)역사 제18호, pp.302~338.
- 오일환, 2004, 서양 고지도의 '동해(동해, Sea of korea)' 표기와 유형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pp.167~186.
- 오일환·김기수, 2004, 18세기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제주도,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pp.113-122.
- 이상태, 2003, 서양 고지도에 표기된 우리나라 국호,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통권 65호, pp.372~391.
- 이상태, 2007,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 땅, 경세원.
- 이상태, 2008, 독도 명칭의 역사적 고찰, 한국지도학회.
- 이진명, 1999, 서양 자료에 나타난 독도,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지, pp.127~147.
- 한상복, 2008, 1900년대 초기 독도의 일본식 별칭, 국회도서관 제45권 제7호, pp.4~15.
- 허정백, 2005, 고지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 울릉도 지리인식, 부경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 17호, pp.163~204.
- 홍성근, 2008, 일본 교과서의 독도기술 실태와 그 영향,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3. 웹사이트

파인드코리아 (<http://www.findcorea.com>)
동북아역사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독도수호대 (<http://www.tokdo.co.kr>)
사이버독도 (<http://www.cybertokdo.com>)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http://www.dokdocenter.org>)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http://www.prkorea.com>)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OldimPrints (<http://www.oldimprints.com>)
RareMaps (<http://www.raremaps.com>)
DavidRumsey (<http://www.davidrumsey.com>)

ABSTRACT

Ulleungdo and Dokdo on Old Western Maps

- Focusing on maps on Findcorea's website -

Choi, Hye-kyoung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names of Ulleungdo and Dokdo have repeated many changes containing the historicity and the identity in them. There are many studies of the names of Ulleungdo and Dokdo shown on Korean old maps. However, there have been only a few studies which approached the naming of Ulleungdo and Dokdo on old western maps.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and changes in marking of Ulleungdo and Dockdo as per produced time/country of about a thousand kinds of old western maps on the Findcorea's website.

On old western maps produced in the 16th and 17th century, there expressed the shape of Korea as a peninsula, the country name and Jejudo only. By the 18th century, Ulleungdo and Dokdo began to show on maps. Regarding Ulleungdo and Dokdo described on old western maps of the 18th century, most of them are first, drawn as two islands with marking the place name of 'Fan-Ling-tao · Tchian-Chan-tao' and second, drawn as the outline only of those two islands without marking the place name. For the location of these two islands, both of them are drawn very close to the eastern coast of Korea. The place name marked as 'Fan-Ling-tao', which is the Chinese pronunciation of Ulleungdo, is same in general.

However, the place name marked as 'Tchian-Chan-tao', which is the Chinese pronunciation of *Cheonsando* as a different name of *Usando* to describe Dokdo, is characteristically found as various markings such as 'Tchian-san-tao', 'Tchiang-san-tau', 'Chiang-Chan-Tao', 'chian-chan-tao', 'chyan-shan-tau', so on.

The shape and place name of Ulleungdo and Dokdo expressed in old western maps of 18th century had been based on maps of Joseon produced in China referred to old maps of Joseon so that the place name was also marked in Chinese of 'Cheonsando', which was a different name of 'Ulleungdo' and 'Usando'. However, as the result of exploration of the East Sea by many western countries began in

earnest from the late 18th century, Ulleungdo and Dokdo on old western maps after the 19th century had been replaced to foreign place names in western style and shapes drawn by Westerners.

Regarding Ulleungdo and Dokdo shown on old western maps after the 19th century, most of them were to mark just by shapes only of the two islands, and 'Argonaut I. · Dagelet I.' and 'Argonaut I.(Taka Shima), Dagelet I.(Matsu Shima) · Hornet I.' as the markings of Ulleungdo, as well as other names confirmed as 'Oulangto · Ousan'.

Especially, a new marking type 'Taku I.' was found at the place for 'Argonaut I.' In the meantime, as the result of review as per produced country, the marking of 'Fan-Ling-tao · Tchian-Chan-tao' as the place name mostly found on old western maps of the 18th century was found on maps of France, England, Italy and Ireland in the frequency order. In case of marking the shape only of the two islands, the number of maps produced as per country was shown as France, England in the order.

Also in case of the marking as 'Fan-Ling-tao · Tchiang-Chan-tao', the number of maps produced as per country was shown as Germany, France and England in the order. In case of variant names as 'Argonaut I. · Dagelet I.' for Ulleungdo shown on old western maps after the 19th century, the number of maps produced as per country was distributed evenly to France, America, England and Germany.

In the 19th century, the naming of 'Fan-Ling-tao · Tchian-Chan-tao' for Ulleungdo and Dokdo was shown on the East Sea alone similar to the D'Anville's map or as four islands along with Argonaut I. and Dagelet, which were mostly confirmed on maps of England.

Also regarding the marking type of Argonaut I.(Taka Shima), Dagelet I.(Matsu Shima) · Hornet I.', it was often shown as five kinds of markings as Dokdo was marked in French name of Liancourt Rock. Regarding the location of Dokdo, it showed in the east (southeast) as its starting point of Ulleungdo and the marking type of 'Oulangto · Ousan' is found on maps produced after 1850.

This study has the meaning that it analyzed markings for the name of Ulleungdo and Dokdo as per produced time and country of about a thousand kinds of old western maps and it expects to be a reference material for an objective approach to the issue of Dokdo expanding to the nature of place name disputes.